목 차

발간사(성북문화원 원장) / 2
축사 / 4

특집 1 | 문학으로 보는 성북
신경림,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9
길음동의 옛 동네를 기억하며,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13
성북동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 『태양의 혀』 8

성북 인물 초대석
한복을 세계에 알린 선각자 - 동소문동4가 그레타리 의상실 방문기 22
'놀이의 천국'을 함께 걷다 - 최성철 작가와 함께한 동소문동 골목 탐방기 34

특집2 | 성북의 자연
주민들의 포근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개운산 48
정릉동의 아름다운 나무들 52

성북공간(사라지고, 만들어지는 공간들)
새로운 길을 찾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공간 길:이음 57
성북의 문인을 잇다, 성북근현대문학관 63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역사 인물
"여성국극,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 여성국극과 임춘앵 67
깊은 소리에 삶을 담아, 소리꾼 한승호 72

2024년 성북문화원의 행사
2024 주민기록단 76
제4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반짝이는 순간들: 성북 다시쓰기》 80
2024 성북동문화유산야행 83
제8회 성북학학술회의 - 성북, 이야기를 담다 : 지역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89
2024 역사문화탐방 96

2024년 성북문화원 소식 105
2024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40
2024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42

발간사

『성북문화』 12호를 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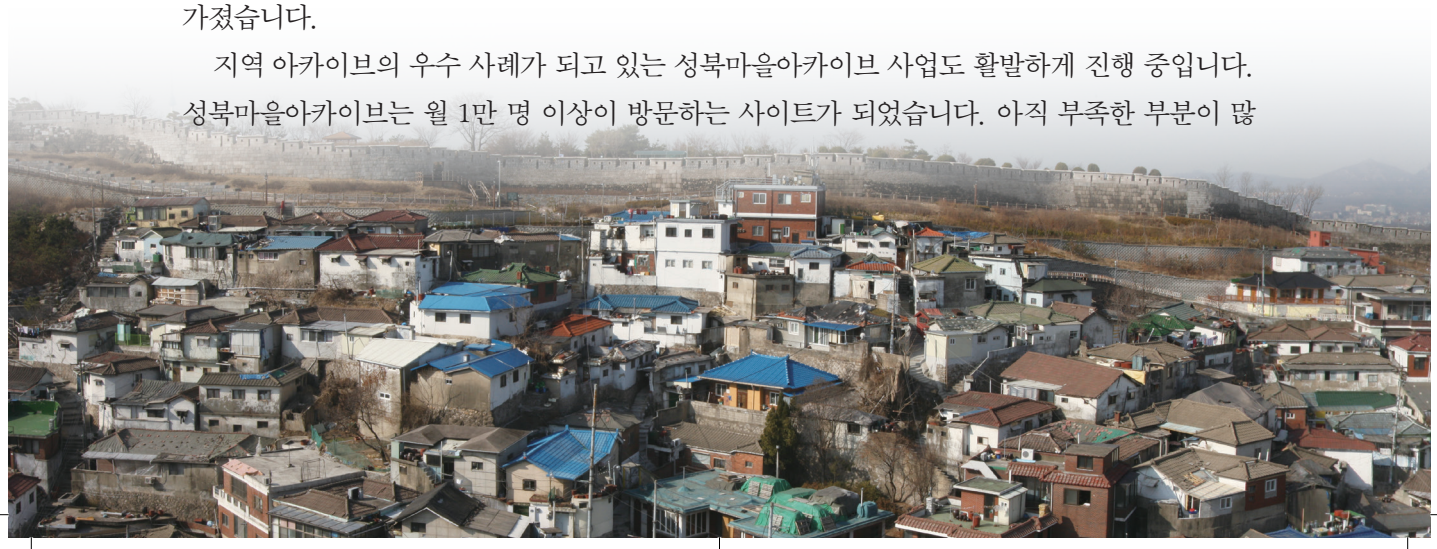
2024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원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을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4년 성북문화원은 '성북문화의 중심'을 목표로, 더 많은 기관 및 단체와 함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서경대학교, 한성대학교와는 학교 단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모델을 만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디지털인재융성사업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문학의 디지털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성북문화원은 대학과 관내 기관과 함께 많은 행사를 함께하였습니다.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행사 'Re:육사'에는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가 함께 하여 풍성하고 창의적인 무대를 만들었으며,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80주기 기념행사 '기억할 만해(萬海)'에는 국민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참여하여 기억에 오래 남을만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성북동문화유산야행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성북국악협회, 성북미술협회, 성북연극협회 등의 단체와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성북50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옛돌박물관, 한국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삼각산 정법사, 덕수교회,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등의 기관도 예년과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북의 지역학인 '성북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7회 성북학 학술회의 '국가무형유산 춤 계승의 의미'에서는 태평무 예능보유자 고 강선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무형유산의 가치와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방향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열띤 토론도 있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와 함께 한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에서는 성북의 지리학, 종교, 지역인문콘텐츠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지역학과 지역문화콘텐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아카이브의 우수 사례가 되고 있는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는 월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





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은 지역의 콘텐츠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북문화원의 연구원들이 매주 꾸준히 쓰고 있는 글들을 모아서 『성북으로 쓴 이야기-금도끼 1』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20여 명의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성북구 구석구석을 찾아 116건의 다채로운 현장 기록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한성대학교, 성북구 마을미디어 단체도 성북을 기록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생산한 기록들은 앞으로 성북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요긴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성북문화』의 주제는 문학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중 한 분인 신경림 선생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신경림 선생의 시는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에 오래 거주하며 성북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소설가 김소진은 지금은 뉴타운이 된 길음동 달동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그의 소설은 70~80년대 우리 시대 서민들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습니다. 그의 소설은 그 시절의 힘든 삶을 기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움의 순간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박미산 시인의 작품에서는 성북동에 대한 진한 애정과 함께 지나간 날에 대한 향수(鄕愁)가 묻어납니다. 이렇게 성북은 문학을 통해 지난날을 회상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북문화』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태준, 박경리, 박완서, 김내성 등등 수많은 문인들의 글에서도 성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 2024년의 성북문화원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도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은 허물을 벗어 새로 시작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혜와 신중함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나쁜 기억은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갖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북문화원장 김영일



한양도성과 삼선동 장수마을

축사

『성북문화』 12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요람'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연구사업과 문화사업을 진행하며, 성북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 및 학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성북문화원은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행사'와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80주기 추모제' 등을 통해 성북구 지역의 대학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이는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에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북동문화유산야행'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협회와도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 문화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북문화』는 2024년 한 해 성북문화원의 성과를 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학의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성북학' 잡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를 통해 성북구 지역의 새로운 역사나 인물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구민들이 『성북문화』를 통해 성북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와 함께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북문화원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2024 성북문화.indb 4 2025-02-21 오후 2:03:19

『성북문화』 제12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성북구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들이 어울려 사는 도시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성북에서 성북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지역문화를 지키는 활동은 전국 모범사례가 되어 여러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사업과 연구 활동의 기록인『성북문화』가 앞으로 이루어갈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역사문화 발전의 요람으로서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 콘텐츠를 나누는 성북문화원의 활동을 성북구의회가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성북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소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과 구의회가 함께하며 구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의 앞날이 희망차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평안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

2024 성북문화.indb 5 2025-02-21 오후 2:03:19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 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성북문화』 제12호 발간에 축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성북구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며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작년의 슬프고 힘겨운 일들을 우리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이겨낼 수 있도록 문화로 연대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은 성북학 연구, 성북마을 아카이브, 전통예술강좌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하는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처럼 성북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강좌를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적 만족과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북문화』는 이러한 성북문화원의 노력과 성과를 담아낸 소중한 기록입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성북구의 문화적 역량을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성북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북문화』 제12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성북구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성북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성북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성북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갑) 국회의원 김영배

2024 성북문화.indb 6 2025-02-21 오후 2:03:19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열정으로 시작한 2024년이 저물어가는 때에 삼가 인사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의 연간 매거진『성북문화』제12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 오신 김영일 성북문화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이 펼친 사업과 행사를『성북문화』제12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성북의 문화 중심'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지역민, 예술인, 관내 대학이 만나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매번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성북문화원이야말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나아가 지역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역량과 희망을 한데 모으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성북문화원의 사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높아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위업을 달성하였고, K-팝과 K-드라마가 여전히 세계인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그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동안 축적한 생활 문화, 지역 문화의 방대한 자료들이 원천 자료로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성북문화원이 집중하고 있는 마을기록화 사업의 성과들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날이 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성북의 역사와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콘텐츠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이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층 윤택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의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삶과 문화가 숨 쉬는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복된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을) 국회의원 김남근

2024 성북문화.indb 7 2025-02-21 오후 2:03:19

문학으로 보는 성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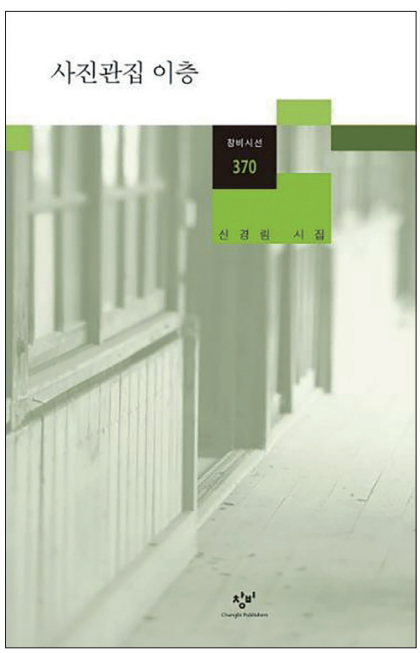
신경림,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장)

한국 문단의 거목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신경림(1935-2024) 시인이 2024년 5월 22일 타계했다. 시인은 1956년 잡지『문학예술』에「갈대」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78년 처음 집을 마련하고 길음동에 살다가 4년 뒤, 정릉동으로 이사하였다. 이후 40년 가까이 정릉동에 살면서 많은 시집을 펴냈다.

시인은 오랫동안 거주하고 생활했던 정릉동과 길음시장을 소재로 한 시를 남겼다. 시인의 한두 편의 시만을 선택해서 소개하는 건 어쩌면 결례일 수 있다. 그러나 성북구를 소재로 한 시를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접근해도 좋을 것이다.

우선「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는 2014년에 펴낸 시집『사진관집 이층』의 첫 부분에 실린 시이다.



『사진관집 이층』, 창비, 2014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이것이
어머니가 서른해 동안 서울 살면서 오간 길이다.
약방에 들러 소화제를 사고
떡집을 지나다가 잠깐 다리쉼을 하고
동향인 언덕바지 방앗간 주인과 고향 소식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동태만을 파는 좌판 할머니한테 들른다.
…(중략)…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걸으면서,

2024 성북문화.indb 9 2025-02-21 오후 2:03:21



2000년 정릉1동 동방주택단지 전경(ⓒ 서울역사아카이브)

마을길고 신작로도 개울도 없어진
고향집에서 언덕밭까지의 길을 내려다보면서,
메데진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이스탄불에서 끼예프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어쩌면 어머니가 보고 갔다는 걸 비로소 안다.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서른해 동안 어머니가 오간 길은 이곳뿐이지만.
— 신경림,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 『사진관집 이층』, 창비, 8-10쪽

이 시의 주인공은 정릉동에서 30여 년을 살았던 시인의 어머니였다. 어쩌면 동시대를 살아온 한국의 보편적 어머니일 수 있다. 시인의 어머니는 서울살이 삼십 년 동안 정릉동 집에서 바로 아래 길음시장까지만 오가며 생활했다. 그전 고향살이 30년 동안에도 역시 집에서 언덕 밭까지만 오가며 살았다. 그 길만 오가면서도 어머니는 '아름다운 것, 신기한 것'을 많이 보셨고, 오히려 시인이 못 본 많은 것을 어머니는 보고 가셨다는 것을 '비로서 안다'고 실토한다. 매일 다니던 그 길에서 세상 -메데진, 디트로이트, 이스탄불, 끼예프-의 많은 것을 바라본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느껴진다.

2024 성북문화.indb 10 2025-02-21 오후 2:03:21




2009년 정릉동 동방주택 골목(ⓒ 서울역사아카이브)

실제로 1982년 시인은 언덕에 자리한 정릉동 주택으로 이사했다. 교통이 불편한 그곳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비롯한 시인의 가족들에게는 오랜 세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어느새 서른해가 훨씬 넘었다
정릉에 들어와 산 지가
아이들도 여기서 자라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자리 잡고
…(중략)…
아침이면 다시 활기차게 집을 나온다
입때까지 못 보던 것 무언가
어제 보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무언지 오늘
찾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정릉에서 서른해를 넘게 살면서

— 신경림, 「정릉에서 서른해를」, 『사진관집 이층』, 창비, 44-45쪽

위 시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정릉에서의 30년을 이야기한다.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의 주인공이 시인의 어머니였다면, 이제 「정릉에서 서른해를」에서는 시인이 주인공이 되어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익숙한 동네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활기차게' 살아간다.

시인은 정릉에서 『달넘세』(1985), 『가난한 사랑노래』(1988), 『목계장터』(1999) 등의 시집과 민요기행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70편을 묶어 시집 『길』(1990)을 발표했다. 또한 폭우가 내려 지하로 물이 새 어렵게 녹음한 민요자료와 책을 버린 곳도 정릉이다. 하지만 그 집은 5월이면 꽃을 피우고 생기가 도는 집이었다.

2024 성북문화.indb 11 2025-02-21 오후 2:03:21





1990년 길음시장(ⓒ 성북구청)



2020년 길음시장(ⓒ 성북문화원)

참고 문헌 |
송지영·심지혜, 『정릉동-잊혀져가는 우리동네 옛이야기를 찾아서』, 성북구청, 2013.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실천문학사, 2013.
신경림, 『사진관집 이층』, 창비, 2014.
신경림, 『쓰러진 자의 꿈』, 창비, 1993.
정릉마을한바퀴 주민실행위원회, 『정릉 마을 한 바퀴』, 성북구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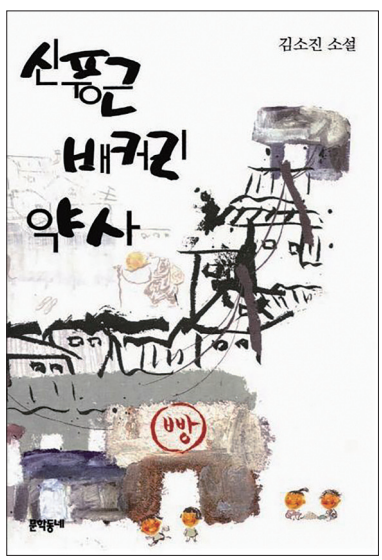
2024 성북문화.indb 12 2025-02-21 오후 2:03:23

길음동의 옛 동네를 기억하며,

김소진의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글 : 김나현(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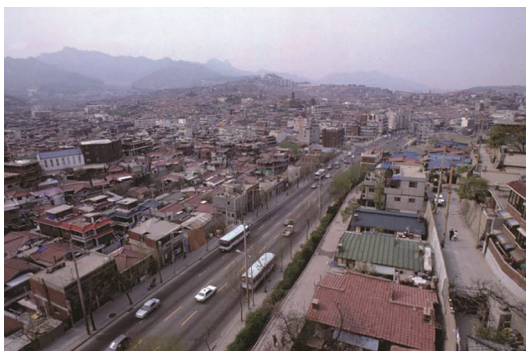
11월 17일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는데, 다들 흩날리는 작은 눈송이들을 보았을까. 눈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눈송이들이 겨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잠시 찾아온 것 같다. 한겨울에 다다르고 있는 11월 말이다. 이 글에서는 하얀 눈 속을 파헤치듯 길음동에서의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는 소설을 소개하려고 한다. 김소진의 단편 소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를 살펴보면서 이 소설에 담긴 미아리 재개발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가 수록된 『신풍근배커리 약사』 표지(문학동네, 2002)
ⓒ 국립중앙도서관

김소진은 1963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다섯 살이 되던 해인 1967년, 미아리고개 너머 정릉천변의 산동네였던 길음동으로 이사한다. 김소진은 미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중학교를 거쳐 서라벌고등학교를 다닌다. 미아초등학교는 길음동에, 서라벌고등학교는 돈암동에 있었던 학교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김소진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북구에서 보냈다. 그리고 1982년 서울대에 입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1991년에는 단편 「쥐잡기」가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이후 김소진은 『열린사회와 그 적들』(1993), 『장석조네 사람들』(1995), 『자전거 도둑』(1996) 등의 작품을 잇달아 발표하며 1990년대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김소진은 본인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소설을 상당수 집필했는데, 어린 시절을 보낸 미아리 동네와 동네의 사람들이 창작의 원천이자 주요한 제재였다. 『고아떤 빵덕어멈』(1993), 『장석조네 사람들』(1995), 『길』(1996), 『신풍근배커리 약사』(1996), 『70년대 민중의 마지막 꿈』(1997) 등 많은 작품에서 미아리와 미아리를 살아간 사람들

2024 성북문화.indb 13 2025-02-21 오후 2:03:23



1990년 미아동과 길음동의 모습. 왼쪽 부근이 현재 길음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서울역사편찬원)



1995년 길음역 7, 8번 출구 부근의 길음동. 길음뉴타운 재개발 이전의 모습이다(ⓒ 서울역사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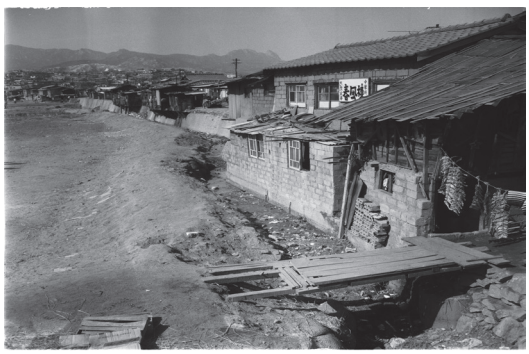
을 담아냈다.

김소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길음동 일대는 통상 미아리로 불렸던 것을 잠시 짚고 가야겠다. 1950년 성북구 미아리가 미아동으로 개칭되었고 1959년에 미아제1동이 길음동이 되지만, 1950년 이전 미아리에 속해있었던 여러 동이 계속해서 같은 생활권으로 인식되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묶어 통상 미아리로 불렀던 것 같다. 한편 1973년에 도봉구가 분리·신설되면서 길음동은 도봉구 미아동이 된다. 1975년 다시 성북구로 편입되면서 길음동이라는 이름을 되찾는다. 김소진은 당시로서나 현재로서나 행정구역상으로 길음동에 거주했지만, 앞선 설명과 같은 관습으로 그 또한 자신이 살았던 곳을 미아리로 불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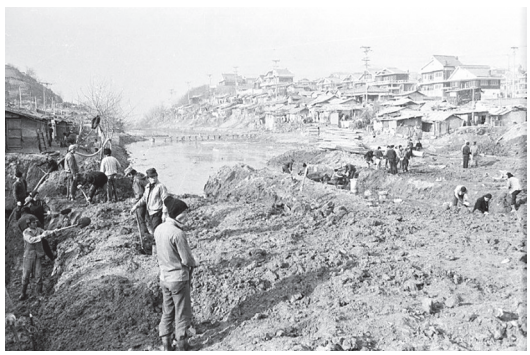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1997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자 김소진이 마지막으로 펴낸 작품으로 이 소설 또한 미아리 판자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설은 90년대 중후반 미아리 일대가 재개발되는 일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현재 시점과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인 과거 시점이 번갈아 나타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소설 속 주인공 '나'는 보일러 수리값을 요청한 셋집의 일을 처리하면서, 재개발 시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어릴 적 살았던 미아리 동네에 들르기로 한다.

'나'의 어머니는 셋집이 있는 곳 건너편 미아동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셋집의 건너편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미아동 일대, 셋방은 길음 뉴타운 인근으로 추측된다.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미아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자면, 미아리는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집단 거주한,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있는 곳이었다. 1957년, 미아리에서는 공동묘지가 외곽으로 이전되고 피난민 정착촌이 만들어졌는데, 사대문 안에서 수재나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미아리 정착촌 주변으로 모여들어 무허가 주택을 세웠다. 미아리는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고, 특히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도심에서 쫓겨난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주택재

2024 성북문화.indb 14 2025-02-21 오후 2:03:23



1972년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 서울역사아카이브)



1975년 정릉천변의 무허가 주택의 모습(ⓒ 서울역사아카이브)

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무허가 판자촌이었던 미아리 달동네에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고, 소설 속 상황처럼 재개발을 위해 달동네의 판잣집들이 철거되었다.

'나'는 경의선 기차를 타고 신촌에서 미아리행 버스에 몸을 싣고,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며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자신을 사라져가는 동네로 밀어내는 힘이 어릴 적 기억 때문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는 그 기억이 선명히 떠오르지만, 그 기억은 단순히 미아리 셋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장석조네 집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한 지붕 아래 아홉 가구가 살던 장석조네 집을 떠올린다. 그 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기찻집이라고 불렸고, 옆의 행길보다 높게 다져진 땅 위에 있었다. 집 옆에는 시궁창 물이 흐르고, 대충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다. 판자촌의 다른 집들처럼 지붕은 엉성하고, 비바람에 약해 보이는 날림집이었다.

다시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로 돌아가면, '나'가 떠올린 어느 날의 사건은 설이 얼마 지나지 않은 날 밤에 시작된다. 그는 어머니가 요강을 감춰둔 탓에 변소를 이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다 눈 속에 감춰진 연장을 밟고 넘어지면서 작은 단지를 깨뜨린다.

'나'의 어머니는 미아리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철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임씨 아저씨의 아들 창이 형이 재개발조합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한다. 어머니는 '나'가 창이 형을 만나면 재개발 분위기나 시세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미아리에 도착한 '나'는 어린 시절의 공간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며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동네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해 이전보다 활기를 띠고 있었다. 창이 형은 재개발조합에서 간사로 일하며 이전과는 다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린다.

'나'는 으스스한 기분과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 그는 설날 이후 가출했던 하루를 떠올린다. 깨진 단지를 눈사람 속에 숨겨놓았지만, 눈사람이 녹으면서 단지가 드러날 것이

2024 성북문화.indb 15 2025-02-21 오후 2:03:24



'나'의 아버지가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신풍의원(길음동 633-14)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 성북문화원)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입구(ⓒ 성북문화원)



미아리 텍사스촌, 길음2동 성매매 집결지 골목(ⓒ 서울역사아카이브)

두려웠던 '나'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용기를 내어 길음천변의 텍사스 거리를 걸으며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닌다. 텍사스 거리의 싸구려 기름 냄새와 매춘부들이 건넨 오징어 튀김의 유혹을 뿌리치며 자신만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쓴다.

어둠이 내려앉자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그는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깨진 단지를 확인하며 혼자만의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힌다. 어린 시절의 그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2024 성북문화.indb 16 2025-02-21 오후 2:03:25



2019년 길음뉴타운 전경(1)(ⓒ 서울연구원)



2019년 길음뉴타운 전경(2)(ⓒ 서울연구원)

을 고민하며 스스로를 자책한다. 이런 기억은 '나'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나'는 창이 형과 함께 동네를 걸으며 옛 기억을 더듬는다. 창이 형은 재개발로 인해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변화된 동네와 사라진 흔적들을 보며 허전함과 상실감을 느낀다. 과거에 살았던 기찻집은 완전히 변모하여 이제는 예전의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자신이 살았던 동네와 과거의 공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되돌아본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받쳐주던 공간이 포크레인의 삽질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사라지는 동네와 함께 자신의 기억마저도 송두리째 퍼내어질 것같은 두려움이 그를 압도한다.

'나'는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쓰지만, 여전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그는 이 상실감이 단순히 공간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얽힌 자신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눈사람 속에 감춰진 깨진 항아리는 단순한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그의 기억과 감정의 상징이었다.

소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슬픔을 그린다. 김소진은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기억과 공간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라진 동네와 변화된 풍경 속에서도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그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2024 성북문화.indb 17 2025-02-21 오후 2:03:26

성북동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

『태양의 혀』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장)



『태양의 혀』 표지(서정시학, 2014)

박미산 시인의 두 번째 시집 『태양의 혀』에는 성북동의 과거를 회상하는 시가 몇 편 포함되어 있다. 박미산 시인은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해인 2008년에 첫 시집 『루낭의 지도』를 출간하였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꾸준히 시작(詩作)을 했다. 그 결과 2014년에 『태양의 혀』를 발표했고, 2020년에는 세 번째 시집 『흰 당나귀를 만나보셨나요』를 엮어냈다. 그는 40년 이상 거주한 성북동에서의 추억과 경험을 『태양의 혀』 3부에 '시'라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먼저 소개할 작품은 성북동에서 40년 넘게 영업을 했던 '성암탕' 관련 시다. 성북구에서 허가받은 목욕탕 1호가 사라지는 아쉬운 마음이 창작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늘 같은 장소에 있었다/한자리에서 붙박여 있었기 때문인지/사는 게 매일매일 같아서인지/내가 늦되어서 그랬는지/당신에게도 얼굴이 있다는 걸 몰랐다…(중략)…흉한 시간이 당신의 녹슨 관에서/쓸쓸하게 흘러나왔을 때/푸른색 타일에 새겨져 있던 백조의 얼굴이/희미해져 갔다/부서진 타일 더미에서/조각난 얼굴이 보였다/처음으로 당신을 본 순간이었다

— 박미산, 「시간의 얼굴-성북구 1호 삼선목욕탕」, 『태양의 혀』, 채문사, 70~71쪽

지금은 성암탕 건물에 편의점과 여러 가게가 입점해 있어 과거 목욕탕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외형은 20여 년 전에 개보수 작업을 크게 하면서 말끔한 형태를 유지 중이다. 목욕탕을 드나들던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그곳이 성암탕이었던 사실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성암탕은 사라져

2024 성북문화.indb 18 2025-02-21 오후 2:03:26



과거 성암목욕탕 건물(ⓒ 성북문화원)



성암초등학교 사진엽서(ⓒ 서울역사박물관)

도 '성암'이라는 명칭은 남아있다. 성암탕 건물 내에는 '성암이발관'이 여전히 운영 중이며, 건물 맞은편에는 '성암 동태랑 코다리' 식당이 있다. 5분 거리에 위치한 성암경로당도 어르신들의 일상을 공유했던 성암탕의 흔적을 확인케 한다. 그보다 앞서 1963년에 설립된 성암국민학교(현 홍익중학교 자리)의 존재로 성암이라는 명칭을 더듬어볼 수 있는데, 몇 년 뒤 홍익북국민학교로 개명되었고 1970년 홍익재단이 인수했지만 1974년에 폐교되었다.



성암경로당(ⓒ 성북문화원)

다음은 성북천 발원지를 다룬 '수고해(水鼓蟹)'라는 시는, 성북천 복개를 비롯한 도시개발에 대해 생각하게끔 한다. 어린 가재를 화자로 설정하여 시의 서정성을 살렸다.

> 아침부터 밤까지/물장구를 치며 놀았는데요/엄마가 사라졌어요/함부로 밟고 간 더럽혀진 집/우린 그 발길을 피해 똘똘 뭉쳐 있었지요/한바탕 개발이란 바람이 불어올 때/집 나갔던 엄마가/불도저를 온몸으로 막았어요…(중략)…엄마의 살과 피가 흐르는 수고해/꽃잎이 종아리까지 담그고/햇빛이 몸을 적시러 놀러 옵니다/우리는 종종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를/다 아는 것같이 생각합니다
>
> — 박미산, 「수고해」, 『태양의 혀』, 채문사, 73~74쪽

성북천 발원지를 찾아가는 길은 시적 상상력만큼이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많다. 발원지는 요

2024 성북문화.indb 19 2025-02-21 오후 2:03:27



1976년 성북천도로공원준공식(ⓒ 서울사진아카이브)



현재 성북천(ⓒ 성북문화원)

정 정치의 산실, 삼청각(三淸閣)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숙정문(肅靖門)안내소를 지나면 1968년 1·21 사태 이야기와 2007년 북악산 전면 개방 표석을 볼 수 있다. 잠시 후 팔각정(八角亭)으로 올라가는 계단 초입에 '수고해 다리'가 나타난다. 그 아래가 바로 성북천 발원지이다. 시의 주제가 조금 무거운 것과 달리 수고해 다리는 '가재가 물에서 물장구치는 다리'라는 뜻이다.



새이용원(ⓒ 성북문화원)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는 성북동의 오래된 가게 '명랑이발소(새이용원, 현 폐업)'를 다루었다. 새이용원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으며,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래된 가게이다. 명랑이발소는 홍익고 후문에서 1975년부터 28년을 운영하다가, 동업자가 은퇴하자 2003년부터 현재 위치로 옮겨 새이용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성북동에서 오래 거주한 시인에게는 새이용원보다는 명랑이발소가 더 익숙한 가게 이름이었다.

성북동에는요 아주 오래된 이발소가 있어요…(중략)…50년 동안 문 닫은 적 없는 명랑이발소, 잘린 머리카락들이 이발소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고 내 귀를 자를 것만 같은 시퍼런 가위도 도망치지 못했네요 머리카락을 제 맘대로 자르던 아가씨는 오늘도 여전히 면도칼을 가죽에 문지르고 거품도 만

2024 성북문화.indb 20 2025-02-21 오후 2:03:28

> 듭니다 구름을 만들어내고 어제와 내일도 만들어요 어제의 나를 번쩍 꺼내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할머니 이발사 이빨 빠진 바리캉이 빛나고 있어요 이제 겨우 자란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달려드네요, 속절없이 머리카락이 후두두 떨어지는
>
> — 박미산, 「명랑이발소」, 『태양의 혀』, 채문사, 80쪽

시의 주인공 이덕훈 할머니는 1958년 정식 면허를 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이발사이다. 이발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이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덕수교회 옆 보덕사에 시주를 했던 인연으로 1967년 성북동에 이사왔다고 한다. 구순(九旬)에 가까운 나이까지 가게 문을 열고 자리를 지켰지만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소개한 성북동과 관련된 시에는 사람, 자연, 추억이 담겨있다. 그동안 성북동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삶과 밀착된 장소였음을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50년 세월 속 따뜻한 마음을 머금은 목욕탕, 청와대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2012.)
박미산, 『태양의 혀』, 채문사, 2022
홍익북국민교 폐교, 중앙일보(1974.11.25.)

2024 성북문화.indb 21 2025-02-21 오후 2:03:28

성북 인물 초대석 1

동소문동4가 그레타리 의상실 방문기

한복을 세계에 알린 선각자

구술: 이용주 (한복 디자이너)
정리: 백외준 (성북문화원 연구부장)
사진: 김나연 (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그레타리 의상실 전경(ⓒ 성북문화원)



2017년 한복패션쇼 '숨결'에 선보인 작품들(ⓒ 그레타리 한복)

한복의 매력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한국에 온 외국 여행객들에게 한복 체험은 필수코스가 됐다. K-팝, K-드라마를 통해 한복의 멋이 알려져 한복은 이제 우리의 전통의상을 넘어 누구나 한 번쯤 꼭 입어보고 싶은 옷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도 한복은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입는 한복의 디자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복이라면 으레 구식옷이라고 여기던 시대에 우리 전통복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인 디자이너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복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멋진 옷이 되었다. 많은 한복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그중 '그레타리'의 명성은 독보적이다.

그레타리 이용주 디자이너는 한국 전통복식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존하며 이를 현대에 재해석해 온 전설적인 디자이너다. 1967년 한복 제작을 시작한 그는 지난 50년 넘게 외길을 걸으며 전통복식 연구와 디자인에 평생을 바쳤다. 그의 한복 작품은 철저한 고증에 기초한 지음새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의 작품과 활동은 단순한 의상 제작을 넘어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24 성북문화.indb 23 2025-02-21 오후 2:03:31

“그레타리는 한복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1972년 뮌헨올림픽 민속예술단의 의상 제작을 시작으로 80년대 미스유니버스 대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십 회의 패션쇼를 열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2006년 드라마 〈주몽〉에 사용하는 800여 벌의 의상을 제작하며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MBC 드라마 주몽 의상협찬 기념 사진(ⓒ 성북문화원)

학창시절 돈암동 서라벌예고와 서라벌예대를 다니며 연극영화학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그는 졸업 후 우연한 계기로 한복 디자이너의 세계에 입문했다. 남성 디자이너로서의 편견과 자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며 전통복식 연구를 위한 독창적인 길을 개척했다. 조선 말 상궁들과의 인터뷰, 박물관 스케치, 장신구 연구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해 궁중 의상을 복원함으로써 한복 디자인의 기초를 닦았다.

그레타리 이용주 디자이너는 한복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민속예술단의 의상 제작을 시작으로 80년대 미스유니버스 대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십 회의 패션쇼를 열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2006년 드라마 〈주몽〉에 사용하는 800여 벌의 의상을 제작하며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한성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하며 전통복식 강의와 전수의 기반을 다졌다. 최근에는 대표 작품과 활동 기록을 모은 책을 출간하여 복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후대에 전하고자 했다.

2024 성북문화.indb 24 2025-02-21 오후 2:03:32

2024년 12월, 한파가 잠시 주춤했던 겨울 오후, 동소문동4가 그레타리 의상실을 방문했다. 1960년대 돈암동에서 보낸 학창시절에서 시작하는 그의 회고담은 졸업 후 한복 디자인을 배우고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 세계를 무대로 한 패션쇼까지 유장하게 흘러갔다. 한복과 동고동락한 외길 50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서울에서의 첫발: 미아리고개와 돈암동의 추억

저는 1944년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6·25사변 이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어요. 제 중학교 시절에는 문화라는 건 TV도 없고 라디오 듣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직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악극단, 그다음에 여성 국극이 있었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사극이 있었는데 몰래 가서 봤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적으로 동요를 했는지 서울로 가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극, 영화까지 생각은 못했고 그냥 서라벌예술고등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서울로 왔죠. 그때만 해도 서울 가는 것이 미국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걸려요. 오후 3시에 기차 타면 새벽 4시에 서울에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철로가 단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쉬고 또 쉬고 해서 오는 게 12시간이 걸리더라고.



인터뷰 중 작품 화보집과 한복 천을 펼쳐 설명해주고 있다(ⓒ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25 2025-02-21 오후 2:03:33



한복 디자이너 이용주(ⓒ 그레타리 한복)

아무래도 학교가 미아리고개에 있었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이 돈암동이에요. 지금 KFC 있는 곳 근처 어디 하숙집이었어요. 그때는 그쪽 일대가 전부 한옥이었죠. 학교는 그냥 미아리고개 넘어서 걸어갔어요. 그때는 차도도 있고 옆에 인도도 있고 그랬어요. 당시에 미아리고개는 포장은 되어 있었는데 매우 좁았어요. 2차선 도로에 옆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그때 전차가 마포종점, 돈암동, 청량리, 노량진까지 갔나요? 전차가 다녔는데 그것도 거의 비어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 시절엔 세월이 그랬어요. 차 타고 갈 일이 없는데 뭘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갈 만한 데가 종로2가 있는 화신백화점, 그다음에 지금 롯데호텔 자리에 반도호텔이라고 있었어요. 화신백화점 갔다가 걸어서 또 반도호텔 구경 가고 그런 세월이었죠. 그때는 오락거리가 없었죠.

예술의 길: 서라벌예고 · 서라벌예대 학창시절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처럼 다녔는데 특별활동부가 미술, 음악, 연극이 있었어요. 특별활동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걸 나눠 들어가는데, 보니까 나는 연극부로 들어갔어요. 매일 오후 시간에 교감 선생님이 연극을 가르쳤어요.

우리 동창들 중에 연극했던 사람이 임동진, 이정길이 있었어요. 저랑 한 반이었어요. 연극 같이 하고, 경연대회도 나가고 그랬죠. 그렇게 같이 연극을 했던 사람 중에서 성공을 한 사람은 많이 없죠.

고등학교에서 서라벌예술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따로 실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예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차로, 말하자면 지금 수시 하는 것처럼. 선우용녀가 1년 후배였어요. 선우용녀는 원래 무용과였는데 우리하고 실습작품 활동하러 다니다가 배우 시험을 봐버렸죠. 예뻤어요. 그때는 무슨 성형 이런 것도 없었는데 선우용녀가 제일 반듯하게 생겼죠.

수업은 유명한 연극, 영화하는 사람들, 감독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중에 이런 영화를 어디서 촬영하는데 그때 왔던 강사들이 학생들을 촬영

2024 성북문화.indb 26 2025-02-21 오후 2:03:33

장에 데리고 갔죠. 그게 힘들었어요. 주로 지방에서 하고 어디 깊은 산속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안 되니까요.

그 시절엔 사람들이 착하니까 뭐 막 술 먹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것도 없었고. 겨우 먹어봐야 미아리시장에 가서 국수 먹는 거. 지금 길음시장이 미아리시장이예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장 앞에 정릉천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는 복개가 안 되어 있었고 건너가는 다리가 있었어요. 지금 미아 현대백화점 있는 곳 뒤편이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해버렸어요.

그때는 연극 상연할 수 있는 극장이 거의 없었어요. 명동 국립극장말고는. 그러고 나중에 생긴 게 드라마센터죠. 명동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걸 보면 관객이 한 30명밖에 안 와요. 연극 보러 간다는 인식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었고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은 좀 있었죠. 배우들도 다 영화 쪽으로 갔어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 극장 입구에 자기들 회사에서 만든 영화를 개봉할 때 보면 친구들이 거기 나와서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영화사가 많았죠. 신필름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영화사가 많았어요.

의상 디자인의 시작: 양재학원부터 미스유니버스대회까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죠. 군대 갔다 와서 여러 영화사를 많이 전전했어요. 하여튼 뭐 일도 해보고 뭐 했어요. 그때는 누가 소개를 해줘요. 어느 영화사 가보라고. 무슨 영화를 하는데 언제 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찾아가요. 그렇게 촬영장을 왔다 갔다 했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역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학교 때 우리가 무용을 배웠던 은방초 선생님이 세운 무용연구소가 있었어요. 올라가서 인사를 하니까 반갑다고 그러시면서 뭐 하냐고 물어보셔서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연구소 안에 보관하고 있던 옷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후로 조금씩 도와드리고 했더니 이런 쪽에 손재주가 좋은 것 같으니 의상 쪽 일을 해보지 않겠냐 권하시더라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내가 의상에 대해 배운 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 신설동에 '노라노 양재학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명동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양재학원을 많이 했어요. 디자이너들이 의상실은 명동에 두고 학원은 또 자기가 따로 또 만들어서 가르친 거죠. 집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를 한 3년 이상 다녔을 거예요. 옷 짓는 법도 배웠지만 경영하는 법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옷감을 어디 가서 사고 하는지. 그러니까 옷을 주문 받아도 옷감을 어디서 파는지를 모르면 어디 가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고 어디 가서 구하는지를 메모해서 찾아다니며 배웠죠. 60년대에는 그랬어요.

2024 성북문화.indb 27 2025-02-21 오후 2:03:33



2017년 한복패션쇼 '숨결'에 선보인 삼국시대 의상(© 그레타리 한복)

1967년도부터 의상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은 했는데 처음에는 옷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많이 알려지지는 않다가 5년쯤 지나서 1972년도에 서독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민속예술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걸 한번 해봐라는 권유가 있어서, 그때에는 이런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양장 하는 분들한테 옷을 맡겨서 전부 양장처럼 해놓더라고요. 양장 디자이너들은 많이 계셨어요. 명동에 수십 명 있었죠. 근데 이제 나는 한복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옷을 디자인해서 처음으로 내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니까 점차 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다음에 이제 큰 게 내가 정말 디자이너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80년대 세계 미스유니버스 대회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전국에 내 이름이 알려졌죠. 이제까지 그런 행사가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미스코리아가 해외에 나갈 때 한복을 한 벌 씩 해주면서 차츰차츰 외국에도 이름이 알려졌죠.

제가 처음 의상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사람들이 옷을 맞추러 오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치수를 재려고 하면 안 재겠다고 해요. 왜냐면 남자가 한복을 디자인한다는 인식이 없으니까요. 남자가 한

2024 성북문화.indb 28 2025-02-21 오후 2:03:34

"제가 처음 의상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사람들이 옷을 맞추러 오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치수를 재려고 하면 안 재겠다고 해요.
왜냐면 남자가 한복을 디자인한다는 인식이 없으니까요. 남자가 한복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양장 쪽에서는 앙드레김이 있었지만 한복 쪽은 제가 처음이었죠. 더구나 그때는 한복 하면 그냥 시장 한복이었고 이름을 걸고 의상실을 낸 곳이 많지 않았어요.

복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양장 쪽에서는 앙드레김이 있었지만 한복 쪽은 제가 처음이었죠. 더구나 그때는 한복 하면 그냥 시장 한복이었고 이름을 걸고 의상실을 낸 곳이 많지 않았어요. 2000년대부터 수요가 급감했죠. 80~90년대에는 이 근방에만 해도 한복 가게가 백 개 정도 있었는데 그사이에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돈암동에서 아리랑고개로 넘어가는 골목으로 거기도 한 열 군데가 있었어요. 이 동네도 몇 군데가 있었어요. 또 성북동 올라가 가는데 거기 많이 있었죠. 성북동 올라가는 그 사거리에서 거기서 한 열 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한 곳도 없죠.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입혀 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문 닫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안 쉬고 일하는 게 나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직접 디자인한 전통 궁중의상을 꺼내 보여주고 있다
(ⓒ 성북문화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상협회의 조직과 패션쇼

1980년 10월에는 한복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조직했어요. 한국의상협회죠. 그때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가 삼청동에 이리자 선생이 있었고, 마포에 이영희 선생, 그다음에 황신엽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죠. 출연금을 각자 200만원씩을 내라 그러면 1400만원 있으면 롯데호텔에서 패션쇼를 하고 의상협회를 만들었죠. 그때도 패션쇼를 쉽게 열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국립무용단이라든지 시립무용단이라든지 무용계에서도 연락

2024 성북문화.indb 29 2025-02-21 오후 2:03:34

이 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하니 의상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신라시대라고 하면, 그런데 그때는 신라시대 조선시대 따질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안 됐어요. 겨우 된 게 KBS에서 책 한 권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부했죠. 그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각 대학교 의상학과 교수들이 복식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삼국시대 복식을 연구해서 논문도 내고 발표도 하고 해서 그걸 보고 디자인을 연구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한복만 배워서 옷을 짓기만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학교 다닐 적에 연극, 영화 공부를 하고 연출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모델의 외모, 의상, 무대를 굉장히 까다롭게 연결하여 생각하고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하면서도 패션쇼라든지 잡지 화보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아름답게 꾸며서 내보내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학교에서 배운 영화, 연극을 결국에 이 한복 쪽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복 패션쇼는 80년대부터 많아졌는데 이리자 선생이 좀 했고, 이영희 선생이 많이 했죠. 그분들은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옷을 많이 잘 만들었어요. 이리자 선생을 처음에는 몰랐죠. 제가 종로5가에 처음 가게를 냈을 때였는데 지나가다 누가 들어와요. 처음엔 몰랐죠, 누군지. 근데 명함을 저한테 주시면서 한 번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저한테 스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죠.

한복 디자인을 하다 보니 각 나라 대사들이나 대사관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각 나라 대사와 연결된 기업도 많고 해서 자리를 마련할 테니 와서 패션쇼를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요. 미국, 남미, 유럽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남미 쪽은 멀기 때문에 짐을 파우치로 싸서 보내주면 그걸 덩어리째 가져가는 식이었어요.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요. 아르헨티나를 가려면 브라질 공항에 내려서 또 갈아타야 하는 식이라 짐을 가지고 가는 건 어려워요. 현지에서 모델을 직접 선발하죠. 현지

"나는 학교 다닐 적에 연극, 영화 공부를 하고 연출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모델의 외모, 의상, 무대를 굉장히 까다롭게 연결하여 생각하고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었어요.
한복을 하면서도 패션쇼라든지 잡지 화보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아름답게 꾸며서 내보냈죠.
나로서는 학교에서 배운 영화, 연극을 결국에 이 한복 쪽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지 않았나 해요.

2024 성북문화.indb 30 2025-02-21 오후 2:03:34





2008년 10월 '국립극장 페스티벌 기념 패션쇼'에서 선보인 그레타리의 작품들(© 그레타리 한복)

2024 성북문화.indb 31 2025-02-21 오후 2:03:35

“패션쇼를 하려면 음악부터 메이크업, 조명까지 다 신경 써야 해요. 옷 갈아입히고 연출하고 쇼 끝나면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런 과정을 제가 다 주관할 수 있으니 해외에서 패션쇼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에서 교포나 적합한 모델을 뽑아놓고 제가 가서 골라요. 키는 되도록 170㎝가 넘으면 안 되고요. 현지에서 한 20명 정도 골라서 이틀 정도 워킹 연습을 시켜요. 당일에도 연습시키고요.

패션쇼를 하려면 음악부터 메이크업, 조명까지 다 신경 써야 해요. 옷 갈아입히고 연출하고 쇼 끝나면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런 과정을 제가 다 주관할 수 있으니 해외에서 패션쇼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는 패션쇼에는 교포들, 현지 외국인들이 초대돼서 와요. 관저가 넓으면 거기서 무대 설치하고 조명까지 다 준비해서 하기도 해요. 관객들에게는 처음 보는 한복이라 그런지 반응이 정말 좋아요. 굉장히 정중하고 품격 있는 옷이잖아요. 특히 인터넷이나 TV가 없던 시절에는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죠.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복 패션쇼 초청장(© 그레타리 한복)

2024 성북문화.indb 32 2025-02-21 오후 2:03:36



이용주 디자이너가 성북문화원에 기증한 책과 팜플렛 (ⓒ 성북문화원)

앞으로의 계획

우선 내년 2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패션쇼를 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지만, 한복을 배우는 후배들한테 내가 가진 기술, 경험, 지식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내가 평생동안 배우고 알았던 걸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2024 성북문화.indb 33 2025-02-21 오후 2:0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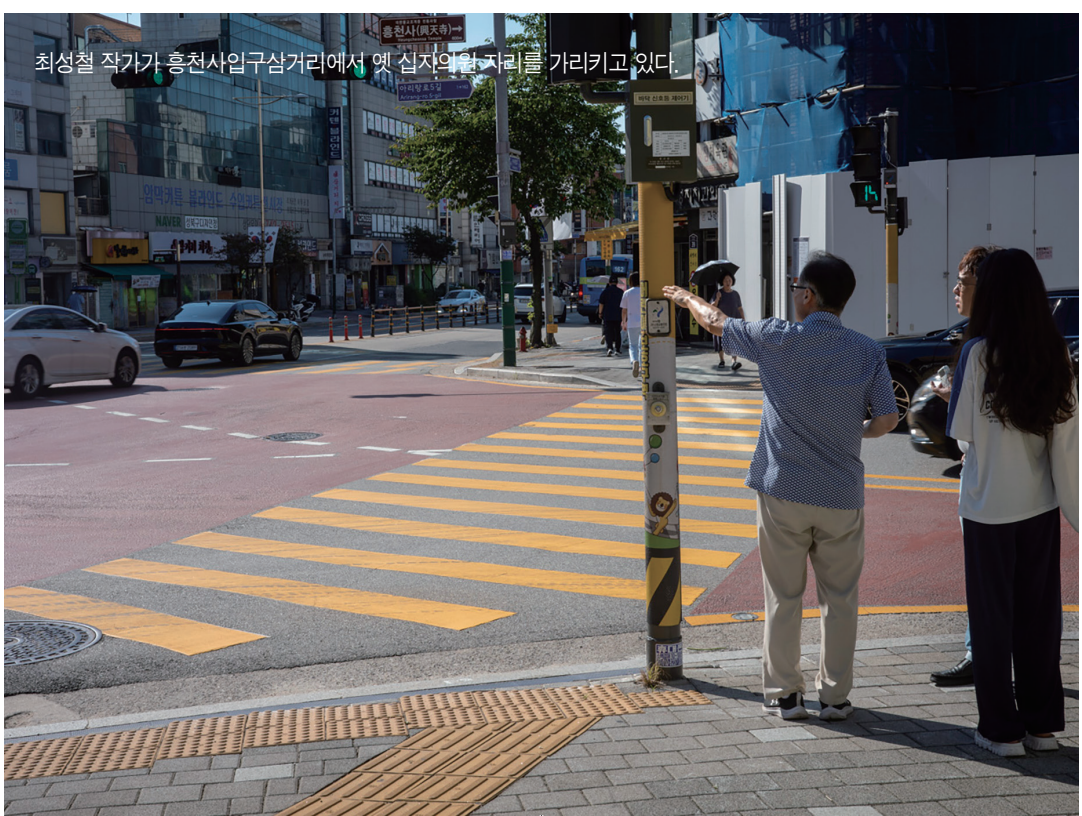
성북 인물 초대석 2

'놀이의 천국'을 함께 걷다

- 최성철 작가와 함께한 동소문동 골목 탐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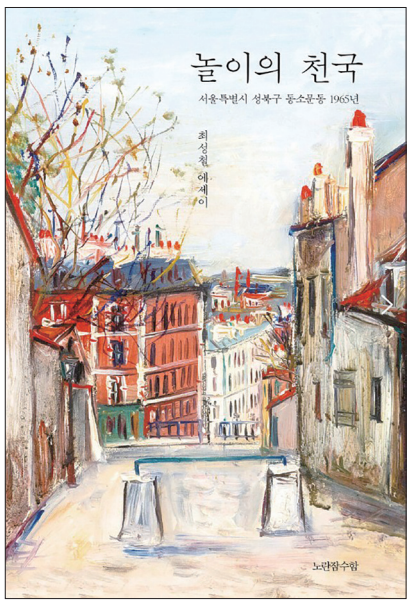
구술: 최성철 (작가)
정리: 백외준 (성북문화원 연구부장)
사진: 김나연 (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놀이의 천국』은 최성철 작가가 2017년 세상에 내놓은 책이다. 작가는 초등학교 시절 1965년 이후 성북구 동소문동에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하여 들려준다. 작가가 기억하는 어릴 적 장소는 집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돈암초등학교, 돈암시장, 성북구청까지 북쪽으로는 흥천사, 아리랑고개, 정릉 배밭골까지를 아울렀던 지역이었다. 작가에게 이곳은 책 제목 그대로 '놀이의 천국'이었다. 공부보단 놀이가 먼저였다. 매일, 매주, 사계절 내내 놀이가 끊이지 않았다. 놀이는 어린이 최성철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었다. 놀이를 매개로 하여 경험한 세계에 대한 앎과 감정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책 속에 풀려나왔다. 기억에 바탕을 둔 수필이지만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성장 소설로도 읽힌다. 누구나 그렇듯 잊히지 않고 끈덕지게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것이



최성철 작가가 흥천사입구삼거리에서 옛 십자의 길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부끄러운 것이던 자랑스러운 것이던 하나의 작은 성장담이다. 작가가 동소문동에서 겪은 일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기억의 전시장에는 저마다 여운을 가진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놀이의 천국』(노란잠수함, 2017)

『놀이의 천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965년'이라는 부제를 가졌지만 책 속에는 동소문동은 물론 성북구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실려 있지 않다. 책에 실린 도판들은 모두 프랑스의 화가 모리스 위트릴로(Maurice Utrillo, 1883~1955)의 그림이다. 작가는 우연히 위트릴로의 그림을 접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트릴로가 그린 20세기 초 파리의 길과 건물 위로 1965년의 동소문동의 추억이 겹쳐 떠올랐던 것이다. 책에는 작가의 집필 동기를 살려 작가의 글 사이사이에 위트릴로의 도시 풍경화를 배치했다.

하지만 성북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책에서 작가가 말한 장소들이 실제 어디인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가 몹시 궁금했다. 인터넷 지도를 참고해서 이쯤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지만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도 여쭈어볼 겸 최성철 작가를 초청하기로 했다. 1965년 한 사내아이에게 '놀이의 천국'이었던 동소문동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50년이 훌쩍 넘어 옛 동네를 다시 찾아 둘러보는 감회는 어떠할지 궁금했다.

그렇게 최성철 작가를 모시고 동소문동을 걸었다. 더위가 아직 기세등등했던 8월 마지막주 아침, 성북문화원 연구원들은 아리랑고개 마루에 있는 아리랑시네센터 앞 작은 광장에서 작가를 만나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천천히 동소문동의 작은 골목들을 찾아 누비며 걸었다. 저자의 현장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답사는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시작해 정덕초등학교 앞, 홍천사 입구 삼거리, 홍천사, 동소문동7가 29번지 작가의 옛집터, 돈암초등학교, 돈암파출소 사거리, 돈암시장을 거쳐 성북구청 앞에서 마무리됐다. 우리는 2km가 넘는 거리를 9시부터 12시까지 걸으며 작가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추억의 장소에 대해 들었다.

이 글은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장소별로 간추리고『놀이의 천국』속 내용을 가져와 보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작가의 책『놀이의 천국』에는 이보다 백배는 더 다채롭고 흥미진진하며 속 깊은 이야기들이 있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 독자들은 책을 구해 꼭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작가의 기억이 위트릴로의 그림과 만나 부글부글 솟아올랐듯이 당신의 기억도 이 책과 만나 예기치 않은 화학반응을 일으킬지 모른다.

2024 성북문화.indb 35 2025-02-21 오후 2:03:37

○ 흥천사 입구 삼거리

여기가 삼거리예요. 저기가 아리랑고개 가는 길이고, 이쪽이 흥천사(신흥사) 올라가는 길이예요. 범진여객 87번 버스 종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저기 보면 신호등 아래에 빨간 소화전 있죠? 그 바로 앞에 항상 버스가 서 있었어요. 버스가 아리랑고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던 거죠. 출발하려는 버스가 연기를 뿜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타요. 재미있는 게 지금은 버스 타면 바로바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버스를 타도 안 가요. 하염없이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면 승객들도 하염없이 조용히 앉아 기다려요. '빨리 갑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시간 맞춰서 버스가 출발하는 거죠.

버스에는 항상 여자 차장이 있었고, '오늘도 무사히'라고 적힌 소녀가 기도하는 컬러 그림이 항상

> *"그때는 버스를 타도 안 가요.*
> *하염없이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면 승객들도 하염없이 조용히 앉아 기다려요.*
> *'빨리 갑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한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려요.*
> *그러다가 시간 맞춰서 버스가 출발하는 거죠.*



최성철 작가가 옛 범진여객 버스종점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2024 성북문화.indb 36 2025-02-21 오후 2:03:37

“우리 어머니는 꼭 삼세번 때를 벗겨요.
처음에 까만 시커먼 때, 나중에 흰 때까지 나와야 끝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목욕탕에 갔어요. 하여튼 목욕탕에 가면 거의 죽음이에요.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버스 엔진이 전부 다 앞에 달려 있어서 기사 옆에 ㄷ자 모양으로 엔진 뚜껑이 있었어요. 겨울에 거기 앉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 같은 애들 5명이나 10명 정도는 기사님이 거기에 앉으라고 해서 갔던 기억이 나요.

버스 종점 앞으로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만둣집, 세탁소, 점집도 있었고. 길 맞은편에는 십자의원이란 병원이 있었고 그 바로 옆이 목욕탕이었어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산이었어요. 큰길가에 가게들이 있고, 그 뒤로 한 라인 정도 집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다 산이었어요.

십자의원 의사 선생님이 이쪽 동네 전체 의료를 담당했어요. 목욕탕도 그런 셈이죠. 목욕탕에 가면 엄마 따라 여탕에 들어온 동네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무려 5학년 때까지 엄마랑 여탕을 갔어요. 아빠 따라가면 때를 안 벗기니까 엄마들이 데리고 다녔던 거죠. 우리 어머니는 꼭 삼세번 때를 벗겨요. 처음에 까만 시커먼 때, 나중에 흰 때까지 나와야 끝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목욕탕



흥천사입구삼거리에서 작가의 옛집으로 통하던 오르막길. 눈이 오면 아이들은 여기서 썰매와 스키를 탔다.

2024 성북문화.indb 37 2025-02-21 오후 2:03:37



흥천사 경내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최성절 작가와 성북문화원 연구원들.

에 갔어요. 하여튼 목욕탕에 가면 거의 죽음이에요.

지금 이 길이 삼거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10분 걸으면 나와요. 어린아이 걸음으로는 한 20분 정도 걸렸을까요?

집 가는 길에서 이쪽으로 빠지면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약사 얼굴도 지금 기억이 나요. 이쪽으로는 옷 맞추는 집이 많았어요. 기성복이 별로 없었을 때. 삼성물산의 SS패션이 나오면서 기성복이 나왔구요. 그땐 전부 맞춰 입었어요. 조그만 재봉집 같은 데서 저도 바지 맞추고. 요새는 맞춤옷이 비싸잖아요. 그때는 맞춘다는 게 비싼 개념이 아니에요. 시장 가서 옷을 사더라도 좀 안 맞으면 길이 재가지고 "내일 모레 와." 그러면 그때 가서 재봉해 놓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길 따라 가면 제중의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십자의원보다 조금 큰 병원이었는데 저쪽 동네를 담당하는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삼거리에서 흥천사 올라가는 길은 전부 흙길이었어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었죠. 양쪽으로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솜틀집이 많았어요. 요즘은 거의 없죠. 가게 뒤편으로는 집들이 많았는데 다 벽돌에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집들이었어요. 철근 콘크리트 집은 거의 없었어요.

○집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2학년 때까지는 시내에서 효제초등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여기서 군대 갈 때까지 있었으니까 9살부터 22살까지 여기서 제 청춘을 다 보냈죠. 종로구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드디어 돈 벌어가지고 성북구로 이사 온 거예요. "사람 사는 동네로 가자" 그러셔가지고. 그때는 성북구가 꿈의 구였죠. 처음에는 우리가 충신동에 살았는데 그때 거기는 완전히 달동네였어요. 여기 오니까 좋았죠. 아버지가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층집 타일벽으로 마감

2024 성북문화.indb 38 2025-02-21 오후 2:03:37

한 집으로 온 거예요. 저한테 어렸을 때의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곳이죠.

우리집은 밖에서 보면 1층 안에서는 2층이에요. 계단 중간에 있는 집이었으니까. 한옥은 아니었고 벽이 타일로 되어 있었어요. 타일벽은 동네에서 우리집이 유일했어요. 저 아래서 올라오는 계단 수가 100개쯤 되는데 한 50개쯤 되는 곳에 우리집이 있었어요. 아침에 대문 열고 나오면 저 멀리까지 보였어요. 미루나무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그때는 좋았어요.

부엌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문지방이 이렇게나 높아서 어머니가 몇 번이나 상을 엎으셨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쪽문을 하나 만들어 거기로 상만 드나들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집 구조였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죠. 집이 얼마나 불편했냐 하면 밖의 화장실에 가면 애들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저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화장실 안은 땅을 파서 큰 드럼통 같은 거 넣어놓고 막대 2개를 놓아둔 구조였으니 굉장히 위험했죠. 근데 저는 그런 화장실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왔죠. 그때는 누구네 집 똥 치운다고 그러면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도둑들이 많았어요. 라디오를 많이 훔쳐 갔어요. 다 대문을 열어 놓고 살았어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집어 들고 가는 거예요. 도둑하고 싸우는 집주인들도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도둑이랑 육박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잡히면 경찰한테 보내고 그랬죠.



동소문동7가 29번지 작가의 옛 집터에서 내려다본 풍경.

2024 성북문화.indb 39 2025-02-21 오후 2:03:38



답사 도중 돈암초등학교 앞 카페에 들러 옛 지번도를 보면서 책에 나온 장소들의 위치를 짚어보고 있다.

집에서 더 올라가면 언덕에 대머리이발관이 있었어요. 얼음 파는 집이 있었고, 솜틀집이 있었고, 만화가게가 있었어요. 뒤쪽으로 더 걸어서 올라가면 동네 뒷산 정상이 나왔는데 거기가 전부 다 밭이었어요. 고추, 배추 이런 거 심은.

그때에는 연탄 가게가 많았어요. 구공탄을 가지고 많이 생활했으니까요. 겨울에 가장 큰 일은 김장 담그는 거와 연탄 들이는 거였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다 광이 있었어요. 동네 연탄 들어오는 날은 집 앞 계단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연탄 들어오는 날은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눈오는날

지금 보셨지만 제가 살았던 곳은 언덕이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눈 쌓인 길을 썰매 타고 내려오면 최고였어요. 저희 집 앞에서 버스 종점 있는 삼거리까지 내려와요. 썰매 말고 큰 대나무를

"눈 많이 왔죠. 요새는 눈이 잘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한 번씩 오면
삼거리에서 홍천사 올라가는 길은 진짜 최고의 놀이터였어요.

2024 성북문화.indb 40 2025-02-21 오후 2:03:38

반으로 잘라서 스키를 만들어 타기도 했어요. 대나무 밑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그거를 불에다 대고 휘어서 발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타는 거예요. 그걸 타면 눈길에서 진짜 신났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눈길 다니기 위험하니까 길에다 연탄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진짜 비극이었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연탄 들이는 날이 난리 난 날이었고, 우리들한테는 눈길에 연탄재 뿌리는 날이 난리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눈이 많이 왔었나요?) 눈 많이 왔죠. 요새는 눈이 잘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이 한 번씩 오면 삼거리에서 흥천사 올라가는 길은 진짜 최고의 놀이터였어요.

○ 흥천사 뒷산과 배밭골

흥천사 앞에서 이 우측 옆길로 가서 산으로 쭉 올라가면 엄청 울창한 숲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설악산 같았어요. 하여튼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예요. 시원하고 가다 보면 연못이 많았어요. 그때는 안전 안내판 같은 게 전혀 없었으니까 빠져 죽은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샘터라 부르는 곳이 나왔고, 더 가면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주택가처럼 뭘 지으려고 마련해 둔 땅 같았어요. 거기를 지나서 더 가서 우측으로 산을 넘어가면 정릉 배밭골이 나왔어요. 그렇게 배밭골까지 가는 거죠.

일요일이면 애들이랑 흥천사 너머 배밭골에 갔어요. 일요일 아침에 애들하고 만나서 출발해요. 제가 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세요. 격자로 문살이 있는 창호지 문인데 한쪽에 손바닥 만한 유리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문을 안 열고도 밖에 누가 왔는지 볼 수 있어요. 요새 그런 거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가 그 유리창으로 내다보시고 "너 어디 가냐?" 그러세요.

그때가 한 9시나 10시쯤 되었어요. 그때는 밥을 어떻게 먹었나 몰라요. 점심도 안 먹었을 거예요. 아침만 먹고 나가서 노는 거죠. 어떤 애는 삶은 계란을 싸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배밭골에서 놀다 5시나 6시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어떨 때는 어둑어둑해져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정릉이 멀었어요.

흥천사 뒤쪽 배밭골 가는 쪽 숲에는 계곡도 크고 숲도 무성했어요. 연못에 들어가면요 개구리알들이 막 손에 감겨요. 개구리만 잡아가지고 비닐봉지 아니면 뭐 담을 거에 담아서 집에 갖고 왔어요. 무당개구리가 뒤집으면 배가 빨갛잖아요. 그거를 한 20마리 잡아다가 집에 넣어 놓으면요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거예요. 그때 우리 동네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

"무당개구리가 뒤집으면 배가 빨갛잖아요. 그거를 한 20마리 잡아다가 집에 넣어 놓으면요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등짝 스매싱을 맞는 거예요. 그때 우리 동네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024 성북문화.indb 41 2025-02-21 오후 2:03:38

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메뚜기도 많이 잡았죠. 배밭골에 가는 목적이 주로 메뚜기 잡는 거예요. 풀무치라는 메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커요. 이만해요. 그게 풀숲에 있는데 그게 막 물어요. 물면 아팠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입에서 막 갈색 거품을 뿜어내고 했어요. 그거는 진짜 잡기 힘든 운이 좋아서 잡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많이 잡았던 건 송장메뚜기라고 해서 요만한 까만 메뚜기예요. 그건 작으니까 송장메뚜기 20마리 잡으면 풀무치 한 마리와 바꿔주고 그랬어요. 매미도 많이 잡았어요. (메뚜기는 잡아서 구워 먹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메뚜기도 집에 가져와서 풀어놓으면 엄마한테 또 등짝 스매싱을 맞았죠.

책에도 썼지만 배밭골 샘터에서 정덕초등학교 애들이랑 싸움도 했어요. 싸움하러 가는데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채, 나무 막대기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개네들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우리 보고 "치사하게 그런 거 갖고 왔냐?" 그래요. 그다음에 붙어서 싸웠는데 저도 맞고 그러다가 정덕 애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코피 터진 애들도 있고요. 저쪽 애들은 덩치가 컸어요. 우리는 4학년인데 개네들은 5, 6학년들을 데려온 거 같아요. 근데 그 싸우는 거를 지나가는 어른이 봤어요. "이놈들!"하고 불러서 저도 붙들리고 몇 명 붙들려서 돈암초등학교 4학년 몇 반 이름까지 다 댔어요. 그 어른이 "학교 가면 너희들 이제 다 퇴학시킬 거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서 집에 왔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부를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지냈어요. 퇴학당하면 아버지가 쫓아낼 것이고, 청계천에 가서 구두닦이를 해야 할지 모른다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눈치만 보고, 공부는 제대로 안 되고, 쉬는 시간마다 그때 싸운 애들 10명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야, 오늘 안 부르네.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 친구들 보고 싶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던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끝났어요. 어렸을 때 그 가슴 조이던 한달간이 정말 큰 고통이었어요.

○ 성북천

그때는 성북 개천 근처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30분에 20원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저 갈현동까지 간 적도 있어요. 6학년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까지 자전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개천 옆에는 솜틀집이 많았어요. 제방은 높지 않아서 개천 바닥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었어요. 개천이 흐르면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양옆으로는 그냥 흙이었어요. 물은 더러웠어요. 발 담그면 무릎

"금표라는 애가 있었는데 개가 나와 깜보예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다 났어요. '네가 나랑 깜보야' 그러면 이제 개랑 나랑은 가방도 들어주고 필요하면 뭐 딱지도 빌려주고 그런 관계를 그냥 맺는 거예요.

2024 성북문화.indb 42 2025-02-21 오후 2:03:38

정도까지 올라와요. 성북구청 뒤로 시작해서 삼선교, 혜화동까지 개천 따라 걸어가기도 했어요. 개천 바닥에는 나무 막대기나 고무 호스 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깡통에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돌렸어요. 쥐불놀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이게 허공에서 잠깐 멈칫하면 불똥이 떨어져서 눈썹, 옷 다 타고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때는 나일론 옷이라 불똥에 한 번 닿으면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요. 엄마한테 밤낮 스매싱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금표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와 깜보예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다 났어요. '네가 나랑 깜보야' 그러면 이제 걔랑 나랑은 가방도 들어주고 필요하면 뭐 딱지도 빌려주고 그런 관계를 그냥 맺는 거예요.

○ 학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전부 다 흙길이었고, 아까 본 기와집들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그땐 그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지루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이 길에서 더 나아가면 제중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었고, 대로 건너 돈암시장이 있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는 해삼, 멍게 파는 리어카들이 쫙 있었어요. 수박, 참외 파는 데도 있었고. 옷핀으로 찍어서 먹었죠. 요즘 같으면 다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는데 아무도 탈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코로나 바로 전이니까 2017년인가 8년도에 한 번 초등학교에 왔어요. 그냥 초등학교가 보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오니까 경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생이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왜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보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갈 때가 됐나부다 이제. 이런데 자꾸 찾아가니까."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어져도 초등학교는 남아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축구 골대하고 시소, 철봉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운동장을 한 번 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 엄마와 돈암시장

> *"제가 좀 사근사근해서 엄마가 유난히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엄마는 돈암시장 가실 때면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는 주로 신발 가게, 멸치, 건어물 가게, 떡 가게 이렇게 쭉 엄마가 자주 가시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좀 사근사근해서 엄마가 유난히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형은 매일 나가 돌아다니고 없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시장 가시다 저를 불러요. 놀다가 엄마 따라서 가는 게 참 싫지요. 구슬치기 같은 거 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싫잖아요. 엄마가 시장 가게에 들르면 꼭 날 인사시켜요. "얘가 둘째예요." 그러면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럼 가게 주인이 머리 쓰다듬어주고…. 엄마랑 시장에서 떡도 구워서 먹고 팥죽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라 같은 거 있고 또 비슷한 게 생긴 게 뭐죠? (남생이요?) 네, 남생이 그런 것도

2024 성북문화.indb 43 2025-02-21 오후 2:03:38



돈암시장. 1965년과는 몰라보게 변했다고 한다.

시장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때 아마 건강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사서 끓여 먹던 보신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쌀, 떡 파는 집에 가 있으면 저는 심심하잖아요. 그럼 그 옆으로 가서 자라 노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재미있어서 시장 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 아버지의 사무실

성북구청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아버지가 여기 성북구청 앞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경찰관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안북도 초산 사람인데 압록강 근처예요. 해방되고 남으로 오셔서 경찰관이 되셨어요. 요새는 대통령 경호할 때 대통령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 사이드카들이 죽 따라가잖아요. 그때는 사이드카가 없었으니까 말 탄 경찰들이 죽 따라갔던 거죠. 아버지가 경찰 기마대에서 근무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경찰 기마대가 있는 근처인 수송동에서 태어났어요. 종로구에서 태어나서 더 좋은 성북구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버셔서 성북구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60년대 초에 경찰을 그만두시고 성북구청 옆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얻어서 대서소(행정사사무소)를 차리셨어요. 비가 오면 제가 우산 심부름을 했어요. 집에서 우산 들고 성북구청 앞까지 걸어가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싹 내밀었대요. 그러면 아버

2024 성북문화.indb 44 2025-02-21 오후 2:03:38



최성철 작가가 성북구청 앞에서 부친이 운영하던 대서소가 있던 터를 가리키고 있다.

지가 일하시다 "뭐야, 저거?" 그러시면서 문 쪽으로 오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고개를 빼고 쏙 숨었대요. 그러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버지 옆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인사하고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하셨던 일은 주로 행정서사였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에 하지만 고소장, 이혼합의서 그런 행정서류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글도 잘 모르고 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대신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매일 수입이 달라요. 어떤 날은 합의서 하나 써주면 하루 수입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 날은 막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신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공쳤다 그러시고.

○ 아버지와 나 그리고 이야기

아버지가 집에서 부르시는 노래 중에 십팔번이 몇 가지 있어요. 「유정천리」, 「불효자는 웁니다」, 「황성옛터」 같은 노래예요. 아버지가 약주 드시고 그런 노래를 자주 부르셨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형제들은 노래 가사의 뜻을 전혀 몰랐죠. '불효자는 웁니다'하는데 '누가 불효자야?' '황성옛터가 어디야?' 그런 생각만 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말 못 할 것들을 속에 품고 계셨을까 생

2024 성북문화.indb 45 2025-02-21 오후 2:03:38

“자식들한테 큰 재산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나쁜 얘기도 좋아요. 자식들은 그걸 나쁘게 안 보고 우리 부모가 이랬었구나 생각할 거예요.

각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없어 많이 아쉬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거나 글로 남겨놨으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이 됐을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버지 얘기, 우리 엄마 얘기를 기억하는 만큼은 풀어놨는데 우리 애들은 몰라요. 끝났어요. 이야기가 더 전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놀이의 천국』에 써놨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후손들이 이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구나, ‘똥통에 빠졌었네!’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사람들 보면 자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남겨놔라고 당부해요. 자식들한테 큰 재산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나쁜 얘기도 좋아요. 자식들은 그걸 나쁘게 안 보고 우리 부모가 이랬었구나 생각할 거예요.



성북천을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최성철 작가.

2024 성북문화.indb 46 2025-02-21 오후 2:03:38

성북의 자연



주민들의 포근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개 운 산

글 : 장지희(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성북구에는 여러 산이 있어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기 좋다. 그중에서도 개운산(開運山)은 성북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산이다. 개운산은 북한산(835.6m)이나 북악산(342m) 등 성북구의 다른 산들과 비교하면 야트막한 134m의 높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어주기도 한다.

개운산의 이름은 '나라의 운을 연다'는 뜻을 가진 인근 사찰 개운사(開運寺)에서 유래하였다. 이 절은 1396년 현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부근에 영도사(永導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가 이곳이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의 묘소 자리로 지정됨에 따라 1790년경 한차례 이전을 하였는데, 이때 '개운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 인근에 오랜 세월 위치했던 사찰 덕에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된 개운산은 안암동 옆에 위치하여 예전에는 '안암산(安巖山)'으로 불리기도 했다.

산 주변으로는 안암동뿐만 아니라 돈암동과 종암동도 함께 접하고 있다. 주변 동네의 이름을 살펴보면 바위 암(巖)자가 들어간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운산이 크고 작은 돌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개운산 경관(ⓒ 서울연구원)



개운산과 안암동, 종암동 일대(ⓒ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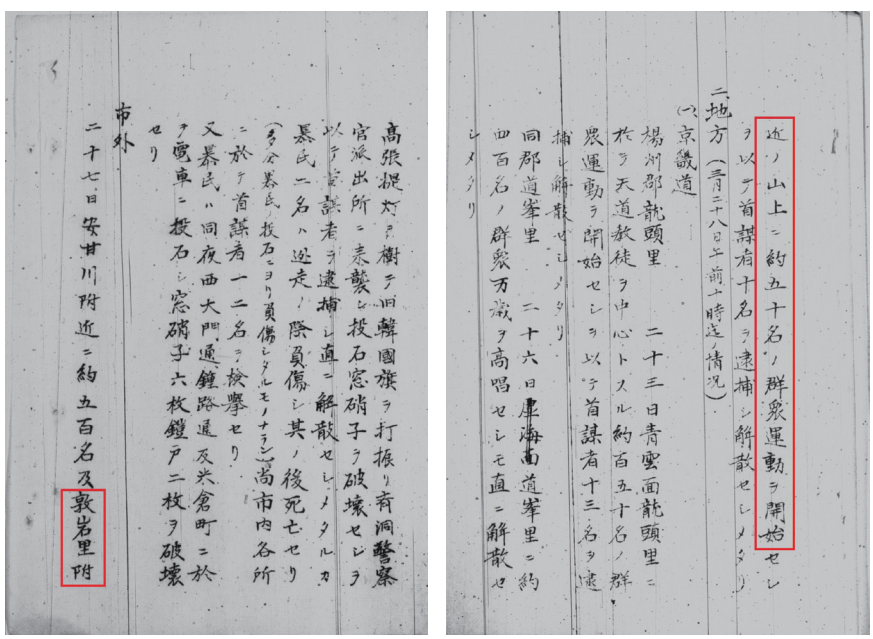
2024 성북문화.indb 48 2025-02-21 오후 2:03:40



종암중학교 뒤쪽으로 보이는 채석장 흔적(ⓒ 성북문화원)

실제로 개운산에는 1960년대까지 채석장이 있었다. 이 채석장은 종암1동에 거주했던 진씨(陳氏) 성을 가진 사람의 소유였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개운산에는 '진석산(陳石山)'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다. 진석산은 양질의 석재 산출지로 일찍부터 유명하여 채석업과 석재 가공업이 이루어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를 지을 때도, 1958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와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석조건물을 지을 때도 이 채석장의 돌을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도 종암중학교 주변에 채석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을 통해 개운산과 관련된 독립운동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 발발 직후인 1919년 3월 1일부터 1921년 10월까지 일본 육군성에 수시로 보고된 전보 문건들과 일자별 정리 보고 문서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를 보면,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인 1919년 3월 27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안감천과 돈암리 산 위 등에서 독립운동이 발생하여 주모자가 체포되고 해산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돈암리 산은 현재의 개운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_독립운동에 관한 건(제29보)(ⓒ 국사편찬위원회)

2024 성북문화.indb 49 2025-02-21 오후 2:03:40

당시 개운산에서 발생한 만세운동에는 약 5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렇듯 개운산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였으며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된 곳임을 알 수 있다.

개운산 일대는 1940년 3월 12일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나무가 울창한 산림이었으며 인근 동네는 주택밀집지역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 월남민들이 산비탈에 정착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벌목하고, 6·25전쟁 당시의 전투로 나무가 타버려 한때는 민둥산이 되기도 했다. 이후 산책로를 조성하며 나무를 심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전 모습을 되찾은 개운산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휴식처와 운동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 서울 성북구 개운산근린공원은 오전 5시 30분이면 아침운동에 나선 주민들로 북적거린다.
> 별다른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주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것은 주택가에 인접해있기 때문.
> 개운산은 주택밀집지역인 성북구 안암·종암1동·돈암1동에 둘러싸여 있다.
> 개운산근린공원의 인기는 다른 공원보다 월등히 많은 동호인 모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개운산근린공원과의 인연으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결성한 동호인 모임이 26개나 된다.(후략)
>
> — 경향신문, 「새벽 건강 同好人 "북적" 개운산근린공원」, 1993.08.05

1995년에는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집에 따라 개운산 일대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산책로가 정비되고 여러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더욱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공간이 되었으며, 특히 2000년에 개관한 개운산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시설을 비롯하여 스포츠와 취미 관련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1990년대 개운산 풍경(ⓒ 성북구청)



개운산 스포츠센터(ⓒ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50 2025-02-21 오후 2:03:41



2016년 성북 해맞이 행사(ⓒ 성북구청)

개운산은 현재까지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이다. 특히 새해 첫날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중 하나인데, 이곳에서 '성북 해맞이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매년 1월 1일 오전 개운산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서는 주민들의 소망을 적은 풍선을 날리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공연과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면서 새해의 시작을 기념한다.

개운산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포근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개운산을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 자료 |
성북구청, 『성북구지』, 성북구청, 1993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 100경』, 성북구청, 2014
박수진 외 7인, 『보문동·안암동』, 성북문화원, 2017
경향신문, 「새벽 건강 同好人 "북적" 개운산근린공원」, 1993.08.05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2024 성북문화.indb 51 2025-02-21 오후 2:03:42

정릉동의 아름다운 나무들

글·사진 :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장)

우리 인류에게 많은 것을 주는 나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한다.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갑작스런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 도시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들에게는 생활 터전이 되어준다.

성북구는 2004년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 제603호, 2004. 12. 6., 제정) 조례의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노목, 거목, 희귀목, 고사목으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1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나무 가운데서도



경국사 경내에 위치한 소나무



경국사 경내에 위치한 보리수나무

2024 성북문화.indb 52 2025-02-21 오후 2:03:43

특별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까지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성북구가 최초였다.

성북구의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는 47개소 600여 그루이다. (2023. 1. 기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소 200여 그루가 위치한 곳이 바로 정릉동이기에, 성북구의 '아름다운 나무' 중 정릉동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소개할 나무는 고려시대 창건된 경국사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이다. 경국사 일주문을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위치해 있는 소나무는 수령이 320여 년이다. 경내로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수령 약 2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다. 성북구 아름나운 나무 중에서는 유일한 보리수나무이다.

다음은 정릉동 손가정 마을에 위치한 느티나무다. 손가정터 표석 옆에 위치한 이 느티나무의 수령은 정확하지 않지만 약 170~200여 년으로 추정된다. 과거 한 손가정 주민의 회고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주민들이 쉬어가는 나무였다고 한다. 이날도 나무 아래 마련된 평상에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쉬고 계신 모습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마을의 큰 나무가 가진 역할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릉동에서 북악산로로 가는 언덕길 중턱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르한스에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 나무의 수령은 약 120여년으로 추정되는데, 식사와 차를 즐기는 이들에게 북악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취를 안겨주어 '아름다운 나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었다.



정릉동 손가정마을에 위치한 느티나무



손가정마을 표지석

2024 성북문화.indb 53 2025-02-21 오후 2:03:44



복합문화공간 르한스에 위치한 소나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우리가 사는 마을에 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찰의 경내나 사유지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일부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고사된 이후 지정해제 되기도 하였다. 또 일부는 지역 재개발과 도시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표지판이 사라져 '아름다운 나무'인 것을 알기 어렵게 되거나 나무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정릉동 로터리에 위치하였던 느티나무.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 카카오맵, 2012년 6월 로드뷰)



느티나무가 있던 자리로 현재는 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2024 성북문화.indb 54 2025-02-21 오후 2:03:46



정릉동 골목길에 위치한 소나무(수령 약 90년)
표지판(우측사진)은 사라진 상태이다.



좌측 소나무의 아름다운 나무 표지판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 (2020년 12월 촬영)



정릉에 위치한 느티나무(수령 약 380년)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고유번호 서8-2)



정릉에 위치한 느티나무(수령 약 380년)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고유번호 서8-3)

2024 성북문화.indb 55 2025-02-21 오후 2:03:49



정릉천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취를
안겨주는 나무들



정릉가는 길 어귀에 위치하여
마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큰 나무

물론 앞서 소개한 나무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름다운 나무'는 사유지에 있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 온존하고 있다. 또 일부는 그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산림보호법을 통해 관리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정릉동의 아름다운 나무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여 아름답지 않은 나무는 없다는 것이다. 수령이 낮거나, 크기가 작거나, 희귀하지 않거나 등의 이유로 인하여 비록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맑은 공기를 주고, 그늘을 제공해주고, 쉼터가 되어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성북구에는 약 8천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공원이나 사찰에 있는 나무, 마을 골목길 어귀에 있는 나무 등을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에게 오늘은 감사의 인사를 한 번 건네어 보면 어떨까.

참고 자료 |
-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 서울정보소통광장(https://opengov.seoul.go.kr/)

2024 성북문화.indb 56 2025-02-21 오후 2:03:50

성북공간 1

새로운 길을 찾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공간 길:이음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연구원)

오은 시인은 시 「1년」에서 5월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근로자도, 어린이도, 어버이도 아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냐고 말이다. 비단 5월에만 혼란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는 어떤 갈래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이름표를 달아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많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이라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순간이 많을 것이다. 성북 길음동에는 자기 앞에 놓인 많은 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청년공간 길이음이다.

청년공간 길이음은 청년 창업자, 문화예술인,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길이음이 자리잡고 있는 삼양로는 성북구에서 북한산 자락을 따라 우이동 계곡 쪽으로 가는 오래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삼양로를 따라 지대가 높은 곳은 전부 묘지였고, 공동묘지가 이장한 뒤에는 전쟁 피난민과 철거민들이 삼양로를 따라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빈촌의 이미지가 강했다. 2000년대 초 길음뉴타운이 조성되고 길음동 일대는 아파트 중심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지만, 삼양로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래된 건물들을 마주할 수 있다.

특히 길음역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 구간은 몇 해 전만 해도 소위 '맥양집'이라 불리는 불법 유해업소가 곳곳에 있던 지역이었다. 맥양집은 겉보기에는 맥주와 양주를 파는 일반 술집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변종 유해업소다. 성북구는 2019년부터 단속 전담반을 꾸려 점검을 시행하고 길 건너편에서는 점포를 볼 수 없게 현수막으로 가리는 등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 유해업소들이 떠난 자리에 청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길이음 역시 그런 노력 중 하나였다.

2024 성북문화.indb 57 2025-02-21 오후 2:03:50



2024년 아직 남아있는 불법 유해업소(ⓒ 성북문화원)



불법 유해업소 퇴출을 위한 현수막(ⓒ 성북문화원)

길이음은 2020년 삼양로 31(길음동 1245-1)에 있던 맥양집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곳이다.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은 리모델링되기 전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었다. 1960년 사용승인을 받은 오래된 도시형 한옥이었던 이 곳의 안으로 들어서면 빛도 잘 들지 않는 좁고 긴 통로가 이어져 있다. 현관과 이어진 술집 역시 유리문을 시트지로 가려두어 낮이지만 어두컴컴하다. 마을아카이브팀이 사진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간이 평면도를 제작했는데 평면도 상 아래쪽인 현관과 붙어있는 '술집'과 '방', '통로', '화장실'은 모두 불법 증축한 공간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의 이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엌 바닥에 있는 지하통로다. 당시 이곳을 관리하고 있던 구청 관계자는 지하통로가 단속을 피해 숨는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 공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삼양로 31은 리모델링을 통해 전혀 다른 공간으로 환골탈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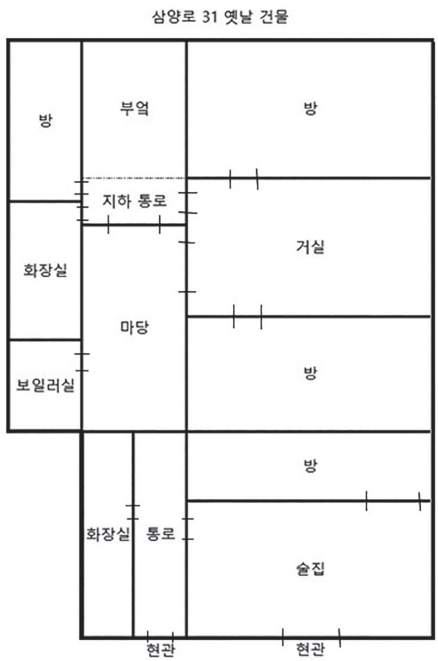


2020년 3월 삼양로 31 리모델링 전 외부(ⓒ 성북문화원)



삼양로 31 리모델링 전 내부(ⓒ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58 2025-02-21 오후 2:03:53



삼양로 31 간이 평면도(ⓒ 성북문화원)



리모델링 전 현관에서 안으로 이어지는 통로(ⓒ 성북문화원)



내부 마당(ⓒ 성북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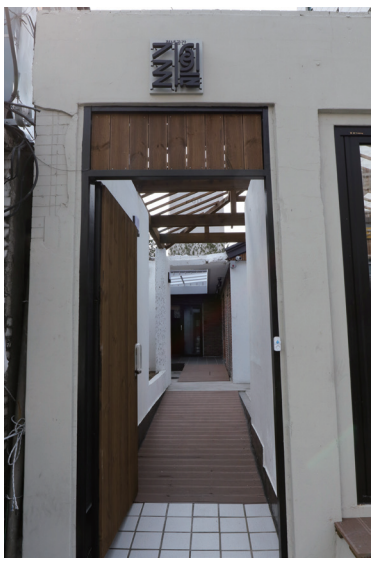
불법 증축된 지하통로(ⓒ 성북문화원)

한다. 어두웠던 통로와 술집은 지붕과 벽을 걷어내고 환하게 햇볕이 드는 마당이 되었다. 건물 안쪽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커뮤니티실'과 각종 주방 설비가 갖춰진 '공유주방'이 되었다. 17평, 작지만 알찬 공간과 성북 주민이나 성북에서 활동하는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 덕에 길 이음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2024 성북문화.indb 59 2025-02-21 오후 2:03:55



청년공간 길이음(ⓒ 성북문화원)



길이음 현관(ⓒ 성북문화원)



길이음 내부 마당(ⓒ 성북문화원)



길이음 커뮤니티실(ⓒ 성북문화원)



길이음 공유주방(ⓒ 성북문화원)



각종 홍보물(ⓒ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60 2025-02-21 오후 2:0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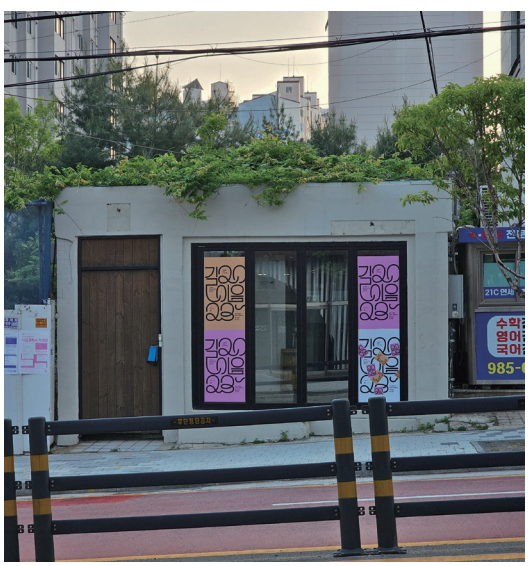


길음청년 창업거리 표지판(ⓒ 성북문화원)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 부지(ⓒ 성북구청)

올해 초 길이음이 길 건너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했다. 삼양로 유해업소 근절 및 거리환경 개선 사업 덕에 37개였던 맥양집이 13개로 감소하고, 청년창업가게와 청년창업실업 공간 공업사 등이 조성되면서 삼양로가 길음청년 창업거리로서 조성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창업거리 조성에 탄력이 붙자 구에서 창업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통합한 거점센터 구축을 결정한 것이다. 이제 삼양로 31은 인접한 부지와 통합하여 지하 1층 ~ 지상 5층 규모의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가칭)' 가 들어설 예정이다.



2024년 05월의 청년공간 길이음(ⓒ 성북문화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청년공간 길이음(ⓒ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61 2025-02-21 오후 2:04:01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부지 펜스에 적힌 낙서(ⓒ 성북문화원)



펜스에 적힌 바람들 (ⓒ 성북문화원)



이 건물의 2층이 길이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북문화원)

지난 5월 정비를 마치고 커뮤니티실을 개방하였다고 소식을 알린 청년공간 길이음은 새로 찾은 보금자리에서 전시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길이음이 떠난 자리에 세워진 펜스에는 삼양로에 담긴 주민들의 바람이 적혀있다. 주민들의 바람처럼 이 길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로 정비되고, 청년공간 길이음도 이름처럼 청년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공간이 되길 응원한다.

참고 자료 |
서울역사박물관, 『길음동』, 서울역사박물관, 2010
성북구청, 성북구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2024
청년공간 길이음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gill2m)
김진명, '맥양집' 많던 그 골목 젊은이들 몰린다(내일신문, 2021.07.14.)
bona,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청년공간 : 길이음(2021.11.04.)
김수정, 길음동 '청년창업거리'…어두웠던 거리가 활기 넘치는 거리로!, 내 손안에 서울(2021.11.10)

2024 성북문화.indb 62 2025-02-21 오후 2:04:05

성북공간 2

이태준, 정지용, 한용운… 성북 문학 한데 품은

성북근현대문학관

글: 이승호(성북근현대문학관 학예연구원)

이태준, 정지용, 한용운… 성북은 수많은 문인들이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글을 남기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북구에 2024년 3월 19일, 성북근현대문학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문학관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 전경(© 성북근현대문학관)

상설전시: 성북 문학을 이야기하다.

근, 현대 성북 지역에는 여러 지식인, 예술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염상섭, 김동리, 조지훈 등 한국의 근현대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문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 2층의 상설전시에서는 성북 문인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성북 문학의 의의를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설전시는 성북에 문인들이 모여살게 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북 지역은 근대 서울의 확장에 따라 중산층이 거주하는 주거구역으로 개발되었고, 여러 문인들 또한 새로이 개발되어 가는 성북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전시장 속에 배치된 역사적 흐름을 읽어보고 뒤돌아보면, 성북에 거주한 문인들이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글귀들이 잔잔히 흘러갑니다.

문인촌 성북의 역사적 배경을 읽어보고 나면, 문학 작품 속 성북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문학 작품들 속에서 등장하는 성북 지역의 모습을 '도심 속 휴식처', '한국전쟁의 상흔', '도시화와 개발의 이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전시된 책들을 읽어보고 다시 뒤를 돌아보면, 문학 작품 속 성북의 이야기를 그림과 음성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너머에는 작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속, 일제강점기, 광복과 한국전쟁기, 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에 활동한 열두 명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대표작을 전시



성북근현대문학관 상설전시실(© 성북근현대문학관)

2024 성북문화.indb 64 2025-02-21 오후 2:04:10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북에서 활동한 60명의 작가들과,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성북의 주요 지역들을 전자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후반부는 문학과 예술의 협주곡이 울려퍼집니다. 성북의 문인들이 힘을 합쳐 펼쳐낸 문예지의 역사를 시작으로, 문학과 영화, 음악, 회화가 어우러진 백화난만의 장이 펼쳐집니다. 문예지의 역사는 구인회의 동인지 『시와 소설』부터 시작하여, 일제 식민통치 말기 우리 문학의 보루였던 『문장』, 해방 이후 성북의 문인들이 함께 펴낸 『현대문학』과 『자유문학』, 그리고 수많은 문인들이 거쳐간 서라벌예술대학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는 이태준의 소설을 영화화한 나운규의 영화 〈오몽녀〉, 조지훈의 시에 윤이상이 곡을 붙인 노래들, 책의 내용만큼이나 아름다운 표지를 장정한 성북의 화가들의 이야기를 그려내었습니다. 성북 문학은 홀로 있어도 아름다웠지만, 함께 하여 더욱 빛납니다.

문학과 예술의 조화를 뒤로 하고 전시를 나서는 공간에서는 성북 문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문인 유족들, 도시개발을 연구한 학자,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문학을 연구한 교사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성북,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깊은 여운이 방문객의 발걸음을 휩싸고 돕니다.

기획전시: 성북 문학 속 수많은 이야기들

상설전시실에서 한 층 내려오면 기획전시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은 2024년 두 차례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관과 동시에 열린 만해 한용운 기획전 〈긔룬 것은 다 님이다〉였고, 이후 12월에 들어 두 번째 기획전시 〈이태준, 그리고 성북〉이 열렸습니다.

〈긔룬 것은 다 님이다〉는 만해 한용운 선생 서거 80주기를 맞이하여 진행된 전시로, 선생의 대표작인 『님의 침묵』과 만년에 거주하였던 성북동의 자택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용운의 삶과 인간관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관객들은 연표를 시작으로 한용운의 문학세계에 들어섭니다. 『님



성북근현대문학관 1층 기획전시실, 〈긔룬 것은 다 님이다〉 전시
(© 성북근현대문학관)



성북근현대문학관 1층 기획전시실, 〈이태준, 그리고 성북〉 전시
(© 성북근현대문학관)

2024 성북문화.indb 65 2025-02-21 오후 2:04:11



성북근현대문학관 2층 상설전시실 필사체험코너(© 성북근현대문학관)

의 침묵』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한용운을 마주하며 식민지 시대 문학이 고민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어봅니다. 이어서 한용운의 여러 저작이 한 데 모인 공간에서 한국 문학사에서 한용운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심우장에서 살아가던 한용운의 모습을 그려낸 영상을 감상하며 공간이 작가에게, 그리고 문학에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기획전시 <이태준, 그리고 성북>은 성북동 수연산방에 거주하던 이태준에 대한 전시입니다. 도입부에서는 이태준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성북의 모습을 지도로 정리하여 보여주며, 이태준의 문학에서 성북 지역이 갖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이태준의 삶을 다룬 공간에서는 그 생애와, 이태준을 대표하는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삶을 이야기한 뒤에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태준의 인간관계를 다룬 코너에서는 이태준과 교유한 문인들, 고완 취미를 공유한 성북의 예술인들, 학창시절을 함께한 인연을 유물과 자료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연산방 시절의 이태준이 발표한 작품들을 살펴본 후, 관람객들은 수연산방의 분위기를 재현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태준에 대해 한발짝 다가가게 됩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에서는 앞으로도 성북 문학과 성북의 여러 문인들에 대해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북근현대문학관이 나아갈 길

성북근현대문학관은 앞으로도 성북 문학을 소개하고, 성북 문학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시를 진행하며, 또 성북 문학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문학관이 2025년에 나아가는 모습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성북문화.indb 66 2025-02-21 오후 2: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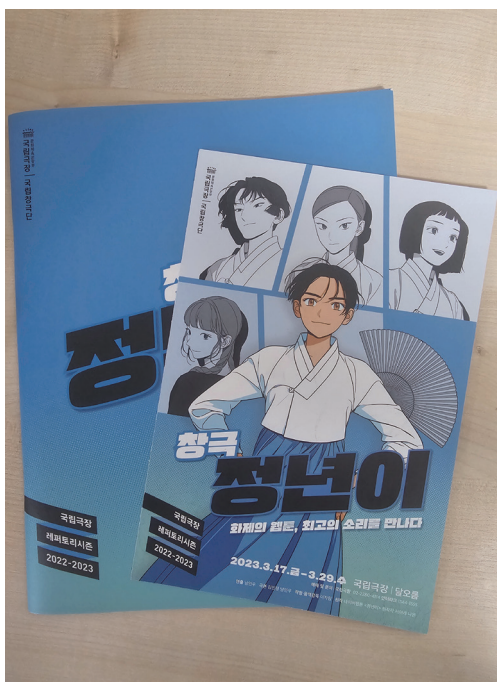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역사 인물 1

“여성국극,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

여성국극과 임춘앵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연구원)

여성국극이란 전통연희자들이 무대 위에서 역할을 나누어 연기, 춤, 소리를 펼치는 공연인 창극의 일종이다. 남녀배우가 모두 무대에 서는 창극과 달리 모든 배역을 여성이 담당하는 여성국극은 195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짧은 전성기 이후 급격한 쇠퇴기 맞이하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런데 요즘 웹툰 <정년이>가 창극,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되면서 이야기의 주요 소재인 여성국극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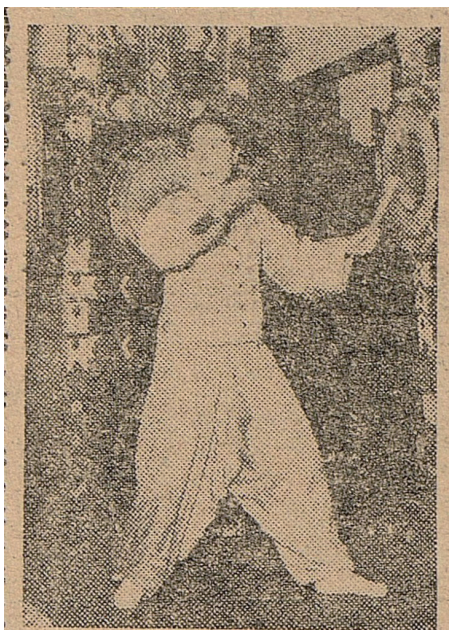


창극 <정년이>(2023) 프로그램 북과 리플렛(ⓒ 성북문화원)

성북구는 1세대 여성국극인들이 머무른 장소이다. 여성국극의 간판스타였던 임춘앵(1924-1975), 김진진(1933-2022)이 장위동에 거주하며, 1960-70년대에 무용연구소를 운영했었다. 그리고 아직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1세대 여성국극인 조영숙(1934-)도 국가무형유산 발탈 보유자로서 동선동에 거주하며, 전수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위동에서 말년을 보낸 임춘앵의 생애를 중심으로 여성국극의 흥망성쇠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임춘앵은 1924년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아버지 임성태와 어머니 김화성 사이의 이남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예인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설장고 명인인 외삼촌 김안식의 집에서 소리를

2024 성북문화.indb 67 2025-02-21 오후 2:04:14



임춘앵의 모습. 『평화신문』, 1955.12.07.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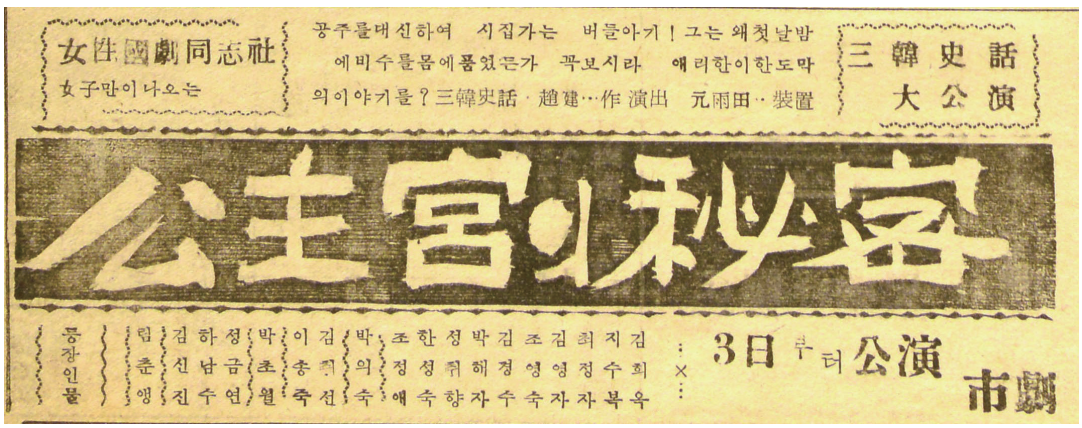
2020년 인터뷰 당시 조영숙(ⓒ 성북문화원)

배웠다고 한다. 임춘앵은 딸의 재능을 키우려는 어머니의 의지로 인해 광주 권번에 들어가 15세까지 소리와 춤을 배운다. 1939년 15세의 나이로 서울로 상경한 그는 크고 작은 연희장에 출연해 두각을 나타낸다. 이어 1942년 부민관에서 전통소리 발전회 공연에 특별 출연하여 이름을 알리게 되고, 1944년 조선창극단에 입단한다.

이즈음 판소리를 근간으로 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창극은 광복과 맞물려 국극이라 이름으로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놓고 있었다. 또 최초의 여성 명창 진채선(1847-?) 이후 여성 전통예술인의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극단의 활동과 운영은 여전히 남성 전통예술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에 반기를 들고 1948년 박록주(1905-1979), 박귀희(1921-1993) 등을 주축으로 여성 국악인들만으로 조직된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되었고, 이때 임춘앵도 여성국악동호회에 입회하한다.

여성국악동호회의 첫 번째 공연인 〈옥중화〉는 춘향전을 각색한 것으로 여기서 임춘앵은 이몽룡 역을 맡았다. 이 〈옥중화〉는 비록 흥행에 실패했지만, 여성 국극에서 남장 연기자가 최초로 등장한 작품이었다. 이듬해 오페라 투란도트를 각색해 만든 〈햇님과 달님〉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여성국극의 대명사가 된다. 이 작품의 성공 후 진행감독이었던 김주전의 제안하여 임춘앵을 중

2024 성북문화.indb 68 2025-02-21 오후 2:04:14



여성국극동지사에서 올린 〈공주궁의 비밀〉 신문광고. 『마산일보』, 1952.05.04.(ⓒ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심으로 '여성국극동지사'라는 단체가 결성된다. 임춘앵은 여기서 〈햇님과 달님〉의 후편인 〈황금돼지〉부터는 본격적으로 남장 연기를 맡게 된다.



1954년 5월 12일 『평화일보』에 실린 '임춘앵과 그 일행'의 공연 광고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여성국극동지사는 1953년부터는 '임춘앵과 그 일행'이라는 이름으로 단체활동을 이어나간다. 이 시기를 전후로 조카 김진진, 김경수, 김혜리 자매를 차례로 데려와 함께 무대에 오르며, 〈산호팔찌〉, 〈여의주〉, 〈구슬공주〉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한다. 이때 여성국극의 인기는 대단하여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극장 앞은 극장을 나서는 배우들을 보려는 팬들로 가득했다고 하며, 남성 명창들이 주도하던 정통적 창극단들이 여성을 대표로 내세워 여성국극으로 위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성국극이 이렇게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창극이 소리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연기와 춤, 소리뿐 아니라 화려한 분장과 무대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데에 있었다. 여기에 여성국극에서는 일관되게 사랑을 주제로 다루며, 여성국극의 남성주인공은 강인하면서도 다정한 당대 여성들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을 구현하였다. 그래서 남역 배우의 연기와 매력은 여성국극 인기의 핵심이었다.

2024 성북문화.indb 69 2025-02-21 오후 2:04:15



1954년 6월 27일 『평화일보』에 실린 '임춘앵과 그 일행'의 공연 광고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박송희 기증 무형유산 기증자료집』(2022)에 실린 여성국극단체 햇님국극단과 세한국극단의 공연 모습(© 국립무형유산원)

그러나 이러한 인기가 무색하게 여성국극은 급격한 쇠퇴를 맞이한다. 임춘앵과 조카 김진진이 갈등을 빚으면서 김진진은 1957년 두 동생과 함께 극단을 나와 '진경 여성국극단'을 조직해 활동한다. 여성 주인공역을 도맡던 김진진을 잃은 임춘앵의 단체는 이후 발표한 작품들이 연거푸 실패한다. 빚더미에 오르면서 공연의 질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차 변두리로 밀려나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임춘앵은 1966년 국극단 활동을 중단한다.

실의에 빠진 임춘앵은 1967년 신경안정제에 과다복용과 연탄가스 중독으로 쓰러진다. 김진진은 그런 임춘앵을 장위동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살폈고, 근처에 '임춘앵 무용 연구소'라는 학원을 차려주었다. 임춘앵은 이곳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한다. 장위동은 임춘앵이 여성국극의 마지막 불꽃을 살려보려 노력했던 장소인 셈이다. 하지만 잦은 음주로 건강을 잃은 임춘앵은 1975년 뇌출혈로 자택에서 사망한다. 그의 죽음과 함께 여성국극은 점차 대중에게 잊혀 갔다.

여성국극이 급격하게 쇠퇴한 이유로는 단체의 난립 문제가 컸다. 흥행 바람을 타고 여성국극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후계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몇몇 스타 배우에게만 의존하여 비슷한 내용의 공

2024 성북문화.indb 70 2025-02-21 오후 2:04:15

연이 반복되었다. 여기에 국산영화 장려정책으로 인해 공연예술이 영화산업에 밀리게 된 것도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60년대 공연예술계의 부흥 시도 과정에서도 여성국극은 '여성들만의 사이비 예술'이라는 비난 속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여성국극은 재기의 힘을 잃게 된다.



임춘앵이 사망한 장위동 273-63번지(© 성북문화원)

올해 7월에도 〈조 도깨비 영숙〉에서 1인 5역을 소화하며 여성국극의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영숙은 그의 저서『여성국극의 뒤안길』(2022)에서 이렇게 말했다.

> "나에게는 영 놓지 못하는 예술세계가 있다. 여성국극,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의 몰락에 안타까운 마음은 꿈속에서도 못 잊는다."

여성국극은 전성기는 현재와 70여 년의 간극이 있다. 그럼에도 90이 넘은 배우가 아직도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고, 왜 대중은 다시 여성국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성별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여성국극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문헌 |
반재식·김은신, 『여성국극왕자 임춘앵전기』, 백중당, 2022
국립무형유산원, 『박송희 기증 무형유산 기증자료집』, 국립무형유산원, 2022
조영숙, 『여성국극의 뒤안길』, 민속원, 2022
송송이, 『근대 이후 여성국극의 형성과 활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김혜정(감독), 「왕자가 된 소녀들」『다큐멘터리』, 영희야놀자, 2013
박돈규, 「햄릿이 남자냐 여자냐 그것이 무슨 문제더냐」, 『조선일보』(2021.02.23.)
정혁준, 「힘든 시대 위로했던 여성국극…세대 넘어 부르는 '부활의 노래'」, 『한겨레S』(2023.08.26.)

2024 성북문화.indb 71 2025-02-21 오후 2:04:16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역사 인물 2

깊은 소리에 삶을 담아
소리꾼 한승호

글 : 장지희(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우리나라 민속 음악은 매우 다양하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민요와 농악 등 민속문화집단이 창조하고 전승하는 음악부터 불교음악, 무속음악과 같이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악, 판소리와 산조 등 음악 전문가 집단이 연출하는 예술음악 등이 있다. 그중 판소리는 전통 성악의 한 갈래로 17세기 중·후반 무렵 서민층을 기반으로 발생하여 긴 시간 사랑받은 우리나라 대표 민속 음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명창 한승호(ⓒ 국가유산청)

2024 성북문화.indb 72 2025-02-21 오후 2:04:16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鼓手,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창(소리), 말(아니리), 몸짓(너름새)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가는 음악인 판소리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12월 24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명창 한승호(© 국가유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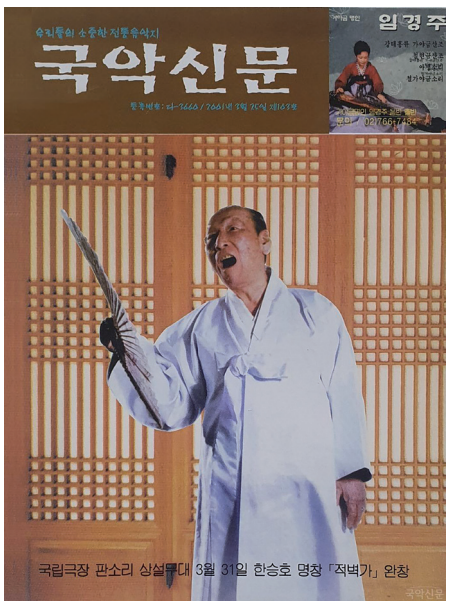
이곳 성북구에도 우리 고유의 종합예술인 판소리를 자신만의 기법으로 구사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정릉동에 거주했던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명창 한승호(韓承鎬, 본명 한갑주) 선생이다. 1924년 3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그는 할아버지 한덕만(韓德萬, 1867-1934), 아버지 한성태(韓成泰, 1890-1931), 형 한영호(?-1946)와 한갑득(韓甲得, 1919-1987) 등이 모두 민속 음악을 한 국악인 집안에서 나고 자라며 자연스레 국악을 가까이할 수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판소리 명창인 아버지 한성태의 영향으로 집에 이름난 명창들이 드나들어 어려서부터 판소리를 접하였다.

그는 여덟 살 무렵, 스승이 내준 소리를 한 대목씩 따라 하며 판소리를 부르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짧은 노래인 단가(短歌)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 이후 '심청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입문하게 된다. 한승호의 첫 번째 소리 선생은 박종원(朴宗元)이었으며 뒤이어 성원목(成元睦)과 장판개(張判介)에게도 소리를 배웠다.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36년 이후 박동실(朴東實)과 송만갑(宋萬甲) 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자신만의 소리를 찾게 되었다. 박동실에게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목청을 좌우로 젖혀가며 힘차게 내지르는 소리인 아귀성(餓鬼聲)을 배워 자신만의 소리 특징을 찾아내었으며, 15살 무렵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명창을 가리키는 '국창(國唱)'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우기 위해 상경하여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했던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에 들어갔다. 이곳은 당시 최고 수준의 판소리 교육기관으로 소리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 생활도 잠시, 송만갑이 병석에 들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고 한승호 또한 변성으로 목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다시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또 한 명의 명창인 김

2024 성북문화.indb 73 2025-02-21 오후 2:04:16



국악신문 표지에 실린 한승호(© 국악신문)

채만(金采萬)의 소리제를 찾아 나섰다.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광주 일대를 떠돌며 '혼자서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는 심정'으로 좋은 소리 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승호의 판소리 계보는 서편제 광주소리가 중심이 되는데, 박동실과 김채만 등 당시 서편제 소리를 했던 명창들의 소리를 찾아 연구하고 이를 본인의 소리에 접목시켜 자신만의 소리를 완성하였다.

해방 이후 한승호는 다시 박동실 스승 밑에서 소리를 하며 그 깊이를 더해갔으며, 스승의 권유로 '광주성악연구회'에 참가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창악인 모임이 활성화되자 대부분의 단원들이 상경하여 광주성악연구회가 해산되었고, 한승호도 여기서 나와 일제강점기에 '쑥대머리'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임방울(林芳蔚)과 함께 다니며 공연을 펼쳤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여성국극의 유행으로 남자 소리꾼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졌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그는 소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굶주림에 지쳐 약장사 일행에 합류하여 광주 양림동 다리 밑에서 소리를 했던 적도 있지만, 그는 산속이나 계곡, 암자를 찾아 날이 새도록 연습하고 소리를 갈고 닦으며 소리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대 이후 다시 상경한 그는 국립창극단(國立唱劇團)에 입단했다. 이후 1974년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 연주 단원으로 발탁되었으며 1976년 6월 30일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활동을 이어왔다.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판소리 다섯마당(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적벽가) 중에서도 적벽가 전승자였던 그는 많은 공연에서 이를 선보였다.

창극이나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정통 소리만을 고집한 그가 설 무대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활동하며 다양한 공연을 이어왔다. 무리한 탓에 70세가 되던 2003년에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던 그는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 200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Санкт-Петербург)에서 무대에 올라 적벽가, 심청가 중 일부와 창작판소리 '태극기가' 등을 부르며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는 데에 힘썼다.

2024 성북문화.indb 74 2025-02-21 오후 2:04:17




옛 한승호 전수소(ⓒ 성북문화원)



한승호 전수소의 모습
(ⓒ artsKoreatv '한갑주 판소리 전수소 방문 기록' 영상 캡쳐)

소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제나 새로운 소리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한승호는 성북구 정릉동에서 제자였던 아내와 함께 생활하였다. 처음 이사 온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991년 4월 자택이자 전수소인 이곳에서 진행한 대담 자료가 남아 있어 그 이전에 성북구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주소는 정릉2동 520번지로, 대문 앞에 '한승호 판소리 전수소' 간판을 걸고 이곳에서 소리를 연습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 주었다. 하지만 2010년 1월 28일, 87세의 나이에 노환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의 소리를 계승할 제자가 없어 아쉬울 따름이지만,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만의 창법을 완성하고 예술세계를 구축한 인간문화재 한승호는 언제나 최고의 소리꾼으로 기억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승규, 『아름다운 만남-한권으로 만나는 중요무형문화재 215人』,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강승의, 「한승호 명창의 판소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2024 성북문화.indb 75 2025-02-21 오후 2:04:18

2024 주민기록단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연구원)
장지희(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 2024년 주민기록단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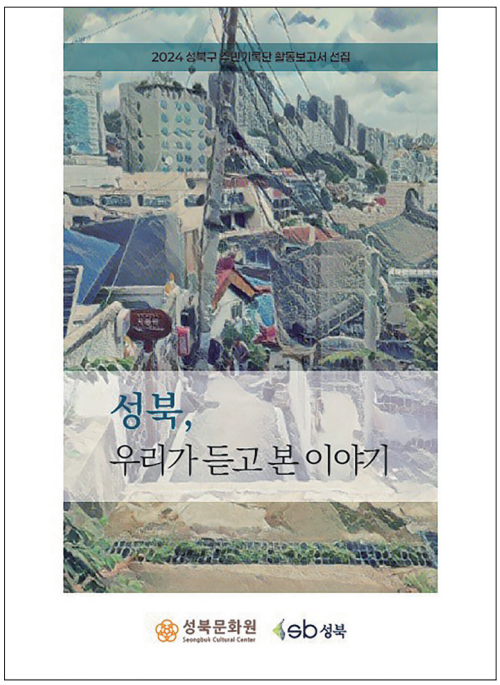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올해로 7년이 되었다. 성북구 주민기록단은 주민들이 직접 이웃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역사기자단이다. 성북문화원은 매년 기록 활동과 구술사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성북구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수료 이후에는 정식 주민기록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 성북구 주민기록단 모집 포스터

기존 주민기록단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상반기에는 구술사의 이해와 글쓰기, 하반기에는 기록 활동과 구술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기존의 상·하반기 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총 9주차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성북문화원에서 이루어졌다. 성북구의 지역사와 마을기록에 관한 주제로 첫 강의의 문을 열었으며, 이후에는 구술사 전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구술사의 이해와 구술인터뷰 방법론을 비롯하여 구술자료 정리와 글쓰기 등 주민기록단 활동에 필요한 기본 및 심화 내용들을 주제로 하여 이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의 오제연 교수님이 맡아 진행해 주셨다. 인터뷰 방법론 교육 내용을 토대로, 교육생들의 개별 실습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오제연 교수님이 직접 피드백을 해주시며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4 성북문화.indb 76 2025-02-21 오후 2:04:19



활동보고서 선집 표지

교육과정에는 구술사 관련 강의와 함께 주민기록단 교육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도 마련하였다. 현장에 나가 기록 활동을 할 때 사진 촬영을 기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의 기본 이론과 상황별 촬영 및 편집 방법을 주제로 2주간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주에는 '성북구를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활동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하였다.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는 사진·영상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범 강사님이, 마지막 주차에는 지음건축도시연구소의 최호진 소장님이 강의를 진행해 주셨다. 이렇게 9주차에 걸쳐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 교육을 통해 주민기록단 교육생들은 정식 주민기록단으로 활동할 준비를 마쳤다.

2024년 6월 25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2024 주민기록단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기존에 활동하던 주민기록단과 올해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 중 활동을 희망한 21명이 정식단원으로 임명되었다. 출범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역사문화자원이 많으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직접 그 순간들을 기록하여 역사로 남기는 것은 주민자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라며 축사를 남겼다.





교육 모습(ⓒ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77 2025-02-21 오후 2:04:21



교육 모습(ⓒ 성북문화원)



교육 수료식(ⓒ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 출범식(ⓒ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 정기모임(ⓒ 성북문화원)

주민기록단은 개별적으로 기록 활동을 하지만 꾸준히 특강 또는 정기 모임을 가지며, 활동 역량을 기르고 서로 간의 활동 소회를 나눴다. 8월에 진행된 특강은 〈기록, 도시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라는 주제였다. 성북구의 역사와 도시를 기록한다는 것에 관한 의미, 그리고 기록할 대상들에 대해 다루면서 기록 활동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다. 활동 기간 중 가진 3차례의 정기 모임은 각자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 과정과 소감,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정기 모임에서 주민기록단 단원들은 주민기록단 활동을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 더 유심히 관찰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주민기록단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며 117건의 이야기를 모았다. 그간 주민기록단의 활동보고서는 성북마을아카이브를 통해 공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기록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활동가별로 보고서 1편씩을 선정하여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을 발행하였다. 보고서 선집과 함께 발간되는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는 제작 과정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 제작 방식은 하반기 교육과 병행하는 것이었으나 올해부터 상·하반기 교육이 일원화되면서 교육

2024 성북문화.indb 78 2025-02-21 오후 2:04:23

과 별도로 구술생애사 책 발간을 진행하였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주민기록단 중 우수활동자를 선발하여 인터뷰를 함께 하였고, 그 결과 구술자로부터 심도 있고 세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이만규 구술자는 선잠단지 지킴이와 선잠제보존위원회로서의 활동과 성북동의 변화상, 개인사를 유쾌하게 풀어내었다.

올해 주민기록단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해이다.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커리큘럼을 정비하고, 주민기록단의 활동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해『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 선집』을 발행했으며, 다년간 활동으로 축적된 우수활동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의 제작 과정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주민기록단의 왕성한 활동이 눈에 띄는 한 해가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기록단이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주민기록단이 되려면?

매년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하는「주민기록단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주민기록단'의 일원으로 성북문화원과 함께 마을 기록 수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이론을 배우고, 이론을 토대로 활동하여 수집한 기록물들은 성북구의 자산이 되며 성북마을아카이브에 선별 및 게재된다. 성북구와 기록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구술사와 기록학에 대한 이해와 성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지역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2024 성북문화.indb 79 2025-02-21 오후 2:04:23

제4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반짝이는 순간들: 성북 다시쓰기》

글: 김나연(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성북구는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이야기와 기록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성북 마을기록 전시를 진행하며 지역의 기록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24년 6월 열린 제4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반짝이는 순간들: 성북 다시쓰기》는 주민들이 직접 그린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주민 참여형 전시였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12명의 시민이 출품한 약 50점의 어반스케치 작품이 전시된 이번 전시는 성북구의 명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장소들이 담겼다. 주민들은 평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포착해 어반스케치로 담았다.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1층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건물의 풍부한 채광이 들어오는 계단 앞쪽 공간 설치했다. 계단 위에서 각자의 작품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주민들의 창의적인 시선에 따라 새롭게 보이는 성북의 모습을 제시했다.

작품에 그려진 주요 장소는 △정릉동 골목 △삼선동 성곽마을 △최순우 옛집 △보문동 골목 △길음동 글빛도서관 등으로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과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순간들을 재조명하고 그 순간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의미를 탐구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제4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반짝이는 순간들: 성북 다시쓰기》 포스터

2024 성북문화.indb 80 2025-02-21 오후 2:04:24



제4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반짝이는 순간들: 성북 다시쓰기》전시 전경(ⓒ 성북문화원)



위) 왼쪽부터 〈박명임, 정릉동 골목〉, 〈장인성, 삼선동 성곽마을〉, 〈임형재, 최순우 옛집〉
아래) 왼쪽부터 〈이승은, 보문동 골목〉, 〈최경순, 길음동 글빛도서관〉(ⓒ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81 2025-02-21 오후 2:04:25





제4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반짝이는 순간들: 성북 다시쓰기》 전시 전경(ⓒ 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 인스타툰 이벤트 참여 현장(ⓒ 성북문화원)

5일 동안 진행된 짧은 전시였지만 관람객 약 1030명이 방문했다. 특히 전시 기간 성북마을아카이브 인스타툰 〈마왕성북〉과 〈진차미와 감차미〉를 활용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했다.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학작품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낸 두 만화를 통해 성북구에 숨겨진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이후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해 구축한 디지털 기록보관소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를 통해 등록·공개됐다.

2024 성북문화.indb 82 2025-02-21 오후 2:04:26

2024 성북문화원 행사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글 :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부장)





관내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개막식(ⓒ 성북문화원)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 중 들린 심우장에서 한용운 분장을 한 배우를 만나 설명을 듣는 장면(ⓒ 성북문화원)

2017년 '성북동문화재야행'이 시작됐다. 2020년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쉬어가기도 했고, '성북동밤마실'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문화재'라는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성북동문화유산야행(이하 야행)'으로 바뀌었다. 벌써 7회째를 맞이하였고, 야행이 열리는 동안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니, 성북구의 대표축제 가운데 하나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야행은 특이한 축제다. 축제 하면 생각나는 먹거리가 따로 없다. 지역 상인들의 가게로 안내하는 것이 전부이다. 대신 문화유산이 있다. 한양도성, 선잠단지, 심우장,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성북동 이종석 별장, 최순우 옛집 등이 그것이다. 문화시설도 있다. 우리옛돌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성북근현대문학관, 성북예향재, 성북역사문화센터, 한상수자수박물관 등의 시설이 야행에 맞춰 야간 개장을 하고, 체험활동을 연계하기도 한다.

참여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먼저 대학이 있다.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학교가 이번 야행에 공연과 전시로 참여했다(그래서 이번 개막식에는 4개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이 참여했다). 성북국악협회, 성북미술협회, 성북연극협회 등 성북

2024 성북문화.indb 84 2025-02-21 오후 2:04:31



야간개방을 한 우리옛돌박물관(ⓒ 성북문화원)

의 문화관련 단체들도 참여해서 공연과 전시를 선보였다.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나 성북 50+센터, 성북동주민자치회 등의 기관도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물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행을 돌아보자. 먼저 성북동의 문화유산에는 성북연극협회의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들은 한용운 선생이 되기도 하고, 조선의 상궁이 되기도 했다. 때로는 신부님이, 때로는 보부상이 되어 문화유산을 안내했다.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문화유산들을 관람하며 야간 해설 탐방을 진행했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은 해설사들은 전문적이지만 친근하게 참여자들에게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했다.

각 문화시설들은 야간 개방을 했다. 성북동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박물관인 우리옛돌박물관에서 보는 야경은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성북선잠박물관과 성북근현대문학관, 성북예향재, 성북역사문화센터, 한상수자수박물관은 야간 개장과 함께 체험을 진행했다. 선잠단지의 의미,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체험이었다.

2024 성북문화.indb 85 2025-02-21 오후 2:04:33

신명나는 공연도 이어졌다. 성북구의 예술단체인 야단법석의 공연으로 흥을 돋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생들은 신나는 길놀이로 개막식의 문을 열었다. 개막식이 끝나고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소고춤과 성신여자대학교 기악과 학생들의 공연이 야행을 축하했다. 무대는 총 네 곳에 마련되었는데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그야 말로 낭만 넘치는 밤을 만들었다. 성북국악협회와 향사가야금병창 보존회의 공연은 우리 국악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성북미술협회와 한성대학교 회화 전공 학생들의 전시도 이목을 끌었다. 성북미술협회 회원들은 프로 예술인으로서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하였으며, 미술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우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도 했다. 한성대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성북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그렸으며, 그것을 이번 야행에서 전시했다. 학생들의 시선으로 본 성북의 모습을 볼 수 있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작품들 역시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팀 '컨템포러리 연희 우수'의 길놀이 (ⓒ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86 2025-02-21 오후 2:04:35



성북미술협회와 한성대학교 회화 전공 학생들이 함께한 '성북아뜰리에' 전시 (ⓒ 성북문화원)



성북선잠박물관 앞에서 열린 각종 체험행사 (ⓒ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87 2025-02-21 오후 2:04:38



2024 성북동문화유산야행을 끝내고 참여한 스텝들의 단체 사진 (© 성북문화원)

이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성대학교 역사콘텐츠트랙 학생들과 함께한 참여형 프로그램 '밤손님이 나타났다'와 '크리미널 마인',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한 한 친환경 프로그램, 성북동주민센터에서 참여한 한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받았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존은 항상 어린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북구가 주관을 하고 성북문화원이 주최를 하는 행사라고 하지만, 점점 참여하는 대학과 기관이 많아지고 있어, 명실공히 지역의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또 누구와 함께할지, 그것이 기대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4 성북문화.indb 88 2025-02-21 오후 2:04:40

2024 성북문화원 소식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성북, 이야기를 담다
: 지역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글 :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장)

2014년 11월 8일(금), 성북문화원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성북문화원은 2013년부터 지역과 관련된 학술회의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특히 '성북학 학술회의'라는 이름으로 연속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성북학 학술회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지역학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지역학을 정의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학술회의도 이러한 목적에 따라 준비되었다.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의 주제는 '성북, 이야기를 담다'였으며, 부제는 '지역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이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성북 지역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를 엮어낼 지역문화콘텐츠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학술회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오전에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성북, 이야기를 담다」 포스터

소주제 섹션1. 문화콘텐츠의 지리학적 기초

첫 번째 소주제 '문화콘텐츠의 지리학적 기초'는 지리를 중심으로 지역학의 기초를 다루었다. 지역학에서 중요한 요소인 지역의 '범주'를 설정하는 방법과 접근 방식을 논의하며, 지리학이 지역학의 필수적 학문임을 강조했다.

먼저 성신여대 지리학과 박경 교수는 '서울의 숨은 보석: 성북의 자연과 역사적 지명'이라는 주제

2024 성북문화.indb 89 2025-02-21 오후 2:04:40



소주제 섹션1. '문화콘텐츠의 지리학적 기초' 발표(ⓒ 성북문화원)



소주제 섹션1. '문화콘텐츠의 지리학적 기초' 토론(ⓒ 성북문화원)

로 발표하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성북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명을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지명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지리교육과 심승희 교수는 '문학지리학×성북구'라는 주제로, 지리학과 문학의 융합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성북의 문학공간에서 '장소 만들기' 접근법을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성과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 교양대학 조윤정 교수는 '성북의 문학 지리: 돈암동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돈암정(敦岩町)의 역사와 문학적 가치를 조명했다. 당시 주택단지 조성과 작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성북의 문학적 장소성을 살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노복진 연구교수, ㈜지인컨설팅 홍선희 선임연구원, 서울시립대 국문과 유승환 교수가 참여해 성북 지역의 지리적 다양성과 역사적 지명을 보존, 문학지리학의 중요성 강조, 돈암정의 지리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북 지역 지리학적 자원과 문학적 공간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2024 성북문화.indb 90 2025-02-21 오후 2:04:41



소주제 섹션2. '성북의 종교유산' 발표(ⓒ 성북문화원)

소주제 섹션2. 성북의 종교유산



소주제 섹션2. '성북의 종교유산' 토론(ⓒ 성북문화원)

소주제 두 번째 섹션 '성북의 종교유산'에서는 성북 지역의 불교 사찰과 민간 신앙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탐구했다. 성신여대 사학과 강호선 교수는 '조선후기 불교와 성북의 사찰'을 주제로 성북 지역의 풍부한 불교 유산을 소개하며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중요성을 강조했다. 샤머니즘박물관 양종승 관장은 '미아리고개 북악당의 맹인 독경 전승과 무형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북악당의 '맹인 독경' 의례를 통해 신앙 의례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설명했다.

토론에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임석규 수석연구관과 성북문화원 김지훈 마을아카이브팀장이 참여해 불교 유산과 왕실의 관련성, 맹인 독경의 보존 필요성, 종교유산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2024 성북문화.indb 91 2025-02-21 오후 2:04:42



소주제 섹션3. '성북 문학인과 지역인문콘텐츠' 발표 (ⓒ 성북문화원)

소주제 섹션3. 성북 문학인과 지역인문콘텐츠



소주제 섹션3. '성북 문학인과 지역인문콘텐츠' 토론 (ⓒ 성북문화원)

세 번째 소주제 섹션에서는 성북 지역 문학인의 작품과 이들의 문학적 장소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김예니 초빙교수는 '1960년대 박경리 단편소설의 공간이동과 공간성'이라는 주제로, 박경리 작가의 정릉동 시기와 그 단편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사의 확장성을 제시하며 그 공간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정슬아 초빙교수는 '신경림 시의 장소성과 세계시민주의'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하여 신경림 시에 드러난 장소성과 작품에 담긴 사회적 연대의식을 조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박수빈 연구교수와 성북근현대문학관 나윤지 학예사가 참석하여 작가의 공간적 배경이 문학의 서사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콘텐츠 창출 가능성을 논의했다.

2024 성북문화.indb 92 2025-02-21 오후 2:04:43

제2부 '지역학과 지역문화콘텐츠'

제1부에서 세 가지 섹션의 소주제 발표가 진행된 후, 오후에는 제2부 '지역학과 지역문화콘텐츠'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작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 이성근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학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마련되어 매우 기쁘며, 이 자리가 지역학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가 성북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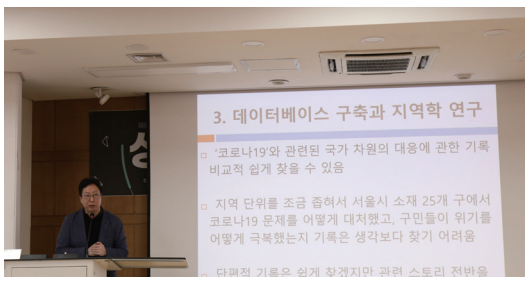
본격적인 발표 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기악과 학생들이 현악4중주 공연을 선보였다. 임수윤(바이올린), 김영랑(바이올린), 오나경(비올라), 김서영(첼로)으로 구성된 팀이 베토벤 현악4중주 '라주모프스키(Razumovsky)' 제1악장을 연주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풍성한 화음이 어우러져 성북학 학술회의가 단순한 학술적 논의의 자리를 넘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었음을 느끼게 했다.

제2부 첫 발표는 성신여대 사학과 이규철 교수가 맡아 '문화콘텐츠와 지역학의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규철 교수는 문화콘텐츠라는 학문 분야가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까지 발전해왔는지 설명하며, 발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주의할 점을 짚었다. 또한 문화콘텐츠가 지역학과 만나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할 때 중요한 요소로 역사학과 지역의 문화 자료를 언급하며, 이들의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성신여대 기악과 현악4중주 공연(ⓒ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93 2025-02-21 오후 2:04:43



제1발표 '문화콘텐츠와 지역학의 관계'(© 성북문화원)



제2발표 '지역문화콘텐츠의 현황과 과제'(© 성북문화원)



제3발표 '낭만적 동경과 좌절의 서사-이태준론'(© 성북문화원)



제4발표 '만화가와 역사학자가 기록한 성북구의 한국전쟁' (© 성북문화원)



제5발표 '윤이상의 삶과 음악 : 지역과 글로벌 사이'(© 성북문화원)

두 번째 발표는 필자가 '지역문화콘텐츠의 현황과 과제'를 성북문화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지역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성북문화원이 그동안 조사, 기획, 개발해 온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지역문화콘텐츠 발굴과 창조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성신여대 국문과 강진호 교수가 맡아 '낭만적 동경과 좌절의 서사 - 이태준론'이라는 주제로 성북 지역의 대표적 문인 이태준의 문학작품과 그의 사상, 그리고 시대적 현실 속에서의 변화를 살폈다. 강진호 교수는 이태준의 작품에 나타난 낭만적 동경과 좌절의 서사를 통해, 그의 문학적 성과와 개인적 고민을 조명했다.

네 번째 발표는 성신여대 사학과 홍석률 교수가 '만화가와 역사학자가 기록한 성북구의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발표는 한국전쟁 당시 성북구 주민이었던 만화가 김성환의 현장 스케치와 역사학자 김성칠의 일기 기록을 중심으로, 전쟁이 이들에게 남긴 흔적과 감정을 분석했다. 홍석률 교수는 특히 이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2024 성북문화.indb 94 2025-02-21 오후 2:04:46



종합 토론(© 성북문화원)

마지막 발표는 성신여대 작곡과 이가영 교수가 '윤이상의 삶과 음악: 지역과 글로벌 사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가영 교수는 윤이상이 성북동에서 보낸 시기를 조명하며, 이 시기가 그의 예술적 영감이 가장 높았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윤이상의 작품 세계와 한국현대사를 연결해 그의 생애를 재조명했다.

발표 후에는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남기현 교수, 인천사연구소 김상태 소장, 국립목포대 문예창작전공 김준현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 오제연 교수, 성신여대 작곡과 신인선 강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학과 지역문화콘텐츠의 발전 방향성, 인물과 문화유산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지역 연구자 및 기관의 교류 필요성을 논의하며 학술회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역학과 문화콘텐츠의 정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새로운 연구와 실천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북학 연구와 학술회의가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 기관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다.

※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자료집은 성북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 성북문화.indb 95 2025-02-21 오후 2:04:47

2024 성북문화원 상반기 역사문화탐방
'역사의 얼이 서린 고장, 부여'

글 : 최정아(성북문화원 문화교육사업팀장)
사진 : 박유진(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연구원)

'백제, 천오백 년, 별로 오랜 세월 아니다 /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듯 / 몇 번 안 가서 백제는 / 엊그제 그끄제 있다.' 민족시인 신동엽 서사시 「금강」의 한 구절이다.

부여는 백제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고장이자, 성북구 동선동에서 작품을 쓴 신동엽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다. 부여에서 나고 자란 신동엽 시인은 작품 속에서 백제와 부여를 되살리기도 했다. 우리는 상반기 역사문화탐방에서 신동엽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을 비롯한 부여의 역사·문화적 장소인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를 탐방하러 부여로 향했다.

백제 역사·문화의 보고: 국립부여박물관

처음으로 탐방한 곳은 국립부여박물관이다. 제1전시실에는 백제 선사문화, 제2전시실은 백제인의 공예기술과 종교문화, 제3전시실은 백제의 불교문화, 제4전시실은 기증유물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제2전실에서는 백제 금속공예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다(국보). 각 소재들이 유기적이고 생동감있게 표현되어 감탄을 자아낸다. 향로라는 형식 속에 찬란한 백제의 문화가 함축적으로 깃들여있는 듯하다.



국립부여박물관 내부를 관람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금동대향로(ⓒ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96 2025-02-21 오후 2:04:49



박물관 야외의 석조유물 해설을 듣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디지털 실감 영상을 관람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전시관을 둘러본 후 박물관 중앙에 삼삼오오 모이니 디지털 실감 영상이 상영됐다. 백제인의 이상향이 담긴 백제문양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펼쳐지며 감탄을 자아낸다. 야외로 나서면 또 다른 전시공간이 펼쳐지는데, 고려시대를 비롯해 부여의 역사를 보여주는 석조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관람하고 다음 탐방지로 발길을 옮겼다.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정신 기록: 신동엽문학관

꽃담길이 시작되는 좁다란 계단을 오르면, '꽃담'이라 쓰인 담벼락이 탐방객을 맞이한다. 길가에는 신동엽 시인의 시가 가득하다. 이를 감상하며 5분정도 걷다보면 어느새 신동엽문학관에 다다른다. 신동엽문학관은 시인 신동엽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신동엽 시인의 생가와 유가족이 기증한 유품, 원고 등이 전시되어있다. 그의 켜켜이 쌓인 세월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셈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초가집부터 둘러보았다. 신동엽 시인이 살았던 생가이다. 짧은 일생 중 많은 시간을 머무른 장소이기도 하다. 그는 「껍데기는 가라」, 「금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 작품으로 민족 고유의 역사인식과 민족애, 민중의 저항의식을 시로 읊었다. 시를 집필했을 방을



신동엽문학관으로 향하는 길목의 꽃담길(ⓒ 성북문화원)



신동엽문학관 외관을 감상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97 2025-02-21 오후 2:04:52



문학관 학예사 해설을 듣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신동엽문학관 전시를 관람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보니, 시로써 민족정신을 일깨우고자했던 시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듯하다.

신동엽 시인의 생가 뒤편 신동엽문학관이 자리한다. 관람과 휴식의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그의 작품을 활용한 현판과 조형물에 문학관의 독창적인 건축미까지, 신동엽이라는 시인을 통해 문학관이라는 또 하나의 작품을 만나고 있는 듯하다. 문학관 학예사가 신동엽의 생애 및 작품 해설하니 모두들 귀를 기울였다.

백제 불교문화의 중심: 정림사지

점심식사를 마치고 시내 중심에 위치한 정림사지에 도착했다.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자리한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이다. 이곳의 유적은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한다. 백제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정림사지오층석탑만이 그 자리에서 긴 세월 지키고 있다(국보).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정제된 기품에서 백제인의 미학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다.

정림사지오층석탑 뒤편에 정림사지 석조여래좌상이 자리하고 있다(보물). 마멸로 형체만 남아있는 고려시대 석불이다. 세월의 모진 풍파에도 온화함을 머금은 채 탐방객을 맞이한다. 백제 멸망 후 고려시대에 정림사가 다시 번창하지는 않았을까 추측케 한다.



정림사지오층석탑 해설을 듣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정림사지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98 2025-02-21 오후 2:04:55

나란히 위치한 정림사지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불교의 상징인 卍(만)자 모양으로 지은 박물관이다. 정림사를 중심으로 백제 불교문화를 잘 전달하고자 건축부터 전시까지 고심한 듯싶다. 정림사지의 유적은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정림사 터와 정림사지박물관의 전시는 탐방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백제의 숨결이 되살아나는 역사테마파크: 백제문화단지

부여 시내를 벗어나 가까운 거리에 마지막 탐방지 백제문화단지가 있다. 백제의 역사·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유적·유물을 재현한 역사테마파크이다. 사비성의 정문 정양문을 통과하면 웅장하고 화려한 궁궐 사비궁이 드러난다. 오른편으로는 백제왕실의 사찰 능사와 목탑, 고분공원이 이어지고 왼편으로는 생활문화마을과 위례성 복원지를 향한다. 백제 왕궁의 위엄부터 계층별 생활상까지 고스란히 짐작케 한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이곳을 거닐고 나니, 문득 백제역사문화관 입구의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백제문화의 핵심을 고스란히 품어내고 있다. 이 구절처럼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백제의 정신이 곳곳에 깃들여있는 듯하다.



백제문화단지 정문을 향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사비궁 재현물을 관람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능사 5층목탑 복원물(© 성북문화원)



백제문화단지에서 단체사진(©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99 2025-02-21 오후 2:04:59

백제 역사·문화의 보고 부여. 그리고 역사적 현실에서 민중의 저항의식을 고뇌한 시인 신동엽. 그의 작품에 백제와 부여의 이야기가 격조 높게 담긴 것은, 역사적 장소로 가득한 부여가 그를 역사의 길로 이끈 것은 아닐까싶다. 역사의 얼이 서린 부여를 뒤로하고 탐방을 마쳤다.

2024 성북문화원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하늘 아래 편안한 땅을 염원한, 천안'

글 : 최정아(성북문화원 문화교육사업팀장)
사진 : 박유진(성북문화원 성북학아카이브팀 연구원)

태조 왕건이 '천명을 받들어 천하를 평안하게 안정시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으로 실현하고자 이름 붙인 천안(天安). 지명의 뜻에서 일맥상통하듯, 혼란한 일제강점기에 국민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만세운동을 전개하며 수많은 애국 열사를 배출한 지역이다.

특히 고향 천안을 떠나서, 해방이후 성북구 정릉동에서 거주한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도 그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번 역사문화탐방에서 천안의 각원사, 천안향교를 유람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따라서 유관순생가, 유관순열사기념관, 독립기념관을 탐방하러 천안으로 향했다.

남북통일 염원이 담긴 사찰: 각원사

첫 탐방지는 태조산 자락에 위치한 각원사이다. 각원사는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불교 신자와 많은 이들의 성금으로 창건되었다고 한다. 사찰의 입구 태조산루를 지나면 대웅보전이 드러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사찰 건물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다.

대웅보전을 지나 긴 계단을 따라 오르면, 청동아미타불상이 있다. 국내 최대 크기의 불상이 자비로운 미소로 중생을 맞이하는 듯하다. 산세와 어우러져 무게 60톤에 달하는 거대한 불상이 웅장함을 더한다. 탐방객들은 각각의 소원을 염원하며, 다음 탐방지로 발길을 옮겼다.

2024 성북문화.indb 100 2025-02-21 오후 2:04:59



각원사에서 해설을 듣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청동아미타불상을 관람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천안에서 유교를 교육한 기관: 천안향교

다음 탐방지는 천안향교이다. 천안향교의 입구 전통대문 홍살문을 지나면 이곳만의 고즈넉함이 드러난다. 향교는 고려·조선 시대에 유교를 교육하는 기관이었는데, 천안향교 역시 충청남도 천안군 지역의 지방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한다. 안쪽에 자리한 유교 예절과 경전을 배우는 교육공간과 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이 정갈함을 더한다. 담장 밖의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00년이 넘은 고목 탱자나무가 천안향교의 오랜 세월을 짐작케 한다.



천안향교 해설을 듣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천안향교를 관람하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유관순열사의 생애: 유관순 열사 생가

점심식사 후 유관순 열사 생가로 향했다(사적). 길가를 따라 늘어선 태극기들이 맞이한다. 이곳은 유관순 열사의 가족이 살던 생가이다.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던 때,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는 만세운동 중 순국했으며 오빠 유우석은 공주에서 또 다른 만세운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단출한 초가집의 외관과 다르게, 만세운동을 논의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내부 모형에서 그들의 독립을 위한 굳건한 결의가 느껴지는 듯하다.

2024 성북문화.indb 101 2025-02-21 오후 2:05:02



유관순 열사 생가(© 성북문화원)



유관순 열사 생가에서 해설을 듣는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유관순 열사 생가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매봉교회가 있다. 이 교회 역시 애국활동을 펼치다가 방화로 소실되어 새로 지었다고 한다. 문화원 선생님들이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가족의 활동을 해설해주니 모두들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

유관순열사·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기록: 유관순열사기념관

생가와 가까운 거리에 유관순열사기념관이 있다.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관순 열사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한다. 전시관에는 유관순 열사의 유품, 사진, 영상자료 등으로 그녀의 생애부터 순국까지의 기록과 함께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순 열사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뒤에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민중이 함께했음을 깨닫게 한다.

전시관 야외로 나서면 독립만세운동의 흔적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독립만세운동의 거사를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린 봉화탑, 아우내 독립만세 운동에서 순국한 넋을 기리는 추모각, 유관순 열사 혼을 위로하는 초혼묘 등이 있다. 독립정신의 숭고함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의미를 생생하게 되새기게 한다.



유관순열사기념관 추모각을 찾은 탐방객(© 성북문화원)



유관순열사기념관 전시관 관람(©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102 2025-02-21 오후 2:05:05

우리 민족 애국정신의 산실: 독립기념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독립기념관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알리고자 설립되었다고 한다. 겨레의 집 중앙에 자리한 '불굴의 한국인 상' 조각상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기념관은 각 주제의 6개 전시관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전시관 '겨레의 뿌리'는 조선시대후기까지 한민족의 독자적인 문화의 발전, 제2전시관 '겨레의 시련'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도 지속된 민족의 독립의지, 제3전시관 '겨레의 함성'은 3·1운동과 대중투쟁에 민중의 모습, 제4전시관 '평화누리'는 독립운동의 가치, 제5전시관 '나라 되찾기'는 독립을 위한 항일무장투쟁, 제6전시관 '새로운 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독립정신을 만나볼 수 있다.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성북문화원)



독립기념관 제3전시관의 만세운동 모형(ⓒ 성북문화원)

특히 이번 탐방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전시관 '겨레의 함성'은 전문해설사와 동행하여 관람했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 해설에 모두들 귀를 기울였다.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독립운동가의 항일 정신을 기리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체임을 깨닫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 모인 탐방객들(ⓒ 성북문화원)



독립기념관 전문 해설을 듣는 탐방객들 (ⓒ 성북문화원)

2024 성북문화.indb 103 2025-02-21 오후 2:05:08



독립기념관에서 이동하는 탐방객(ⓒ 성북문화원)



독립기념관에서 단체사진(ⓒ 성북문화원)

기에 충분한 듯하다. 탐방객은 아픔 역사를 뒤로 한 채, 민족의 비상을 표현한 겨레의 탑을 바라보며 너른 광장을 걸어 나왔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땅을 염원하듯,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천안. 널리 이름 알려진 독립운동가 외에도 독립을 위해 힘쓴, 그러나 잊힌 수많은 무명 독립운동가의 헌신도 함께 되새기며 탐방을 마쳤다.

2024 성북문화.indb 104 2025-02-21 오후 2:05:09

2024년 성북문화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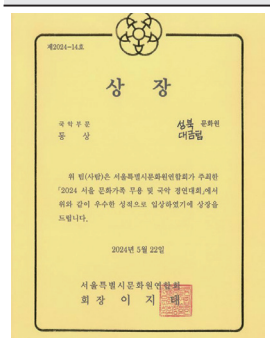
2024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2024년에도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기계발을 실현하는 성북문화원 수강생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외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수강생들이 반가운 수상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강사님들에 감사드리며, 꾸준하게 실력을 키우는 수강생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강좌로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을 꾸려나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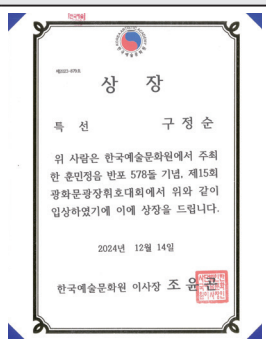
구분	강좌	성명	수상 내역
수강생	대금	김희석·김승철 박승재·전병기· 조현우	2024 서울문화가족 무용 및 국악 경연대회 국악부문 동상
	문인화	구정순	제15회 광화문광장휘호대회 특선
		김진수	2024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동상
		여영희	2024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제15회 광화문광장휘호대회 우수상
		정명숙	제15회 광화문광장휘호대회 특선
	민화-전통채색	길윤경	제4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대상전 예술창작상
			제2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민화부문 특선상
	사진교실	고미자	제36회 양산 전국사진공모전 금상
		권숙경	제6회 경기광주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김지문	2024 군포 전국사진촬영대회 가작
		박금주	2024 군포 전국사진촬영대회 장려
			제24회 남양주 전국꽃사진공모전 은상
		박상현	2024 성남 전국사진촬영대회 가작
		박해숙	제24회 남양주 전국꽃사진공모전 장려
			제36회 양산 전국사진공모전 장려
		이철수	2024 군포 전국사진촬영대회 동상
			제6회 경기광주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제36회 양산 전국사진공모전 장려
	수묵산수화	김민섭	2024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최우수상
	유화&드로잉	추정애	제2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전국공모 서양화부문 특선상
			제30회 행주미술·공예·디자인대전 입선
			제14회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일반부미술부문 입선
			제38회 대한민국회화대전 전국공모 서양화부문 특선상
	한문서예	정영미	2024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2024 성북문화.indb 105 2025-02-21 오후 2:0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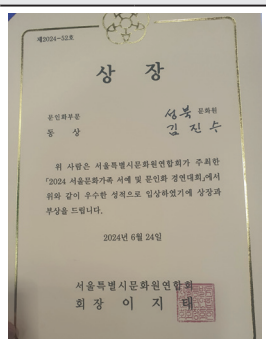
상장 및 수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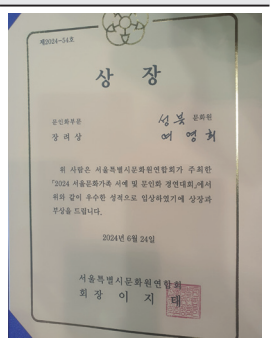
대금 | 김희석 외 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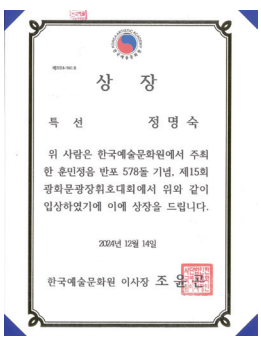
문인화 | 구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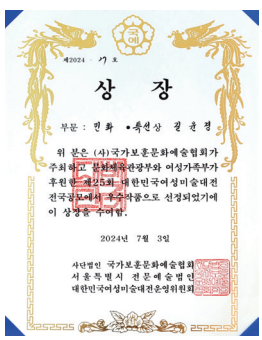
문인화 | 김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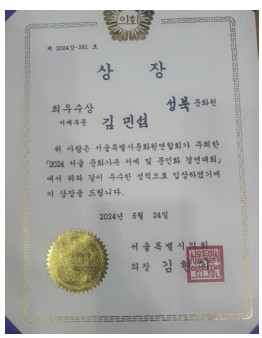
문인화 | 여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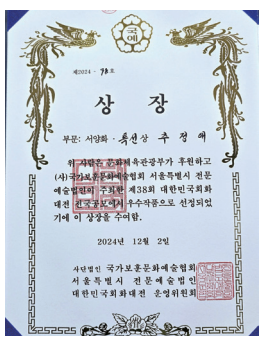
문인화 | 정명숙



민화 | 길윤경



수묵산수화 | 김민섭



유화&드로잉 | 추정애



한문서예 | 정영미





2024 성북문화.indb 106 2025-02-21 오후 2: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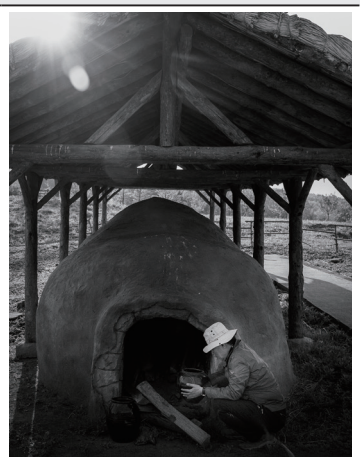
상장 및 수상 사진



사진교실 | 권숙경



사진교실 | 김지문



사진교실 | 박금주



사진교실 | 고미자



사진교실 | 박상현



사진교실 | 박해숙



사진교실 | 이철수

2024 성북문화.indb 107 2025-02-21 오후 2:05:15

2024년 성북구 작품전 수상작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성북구 문화유산 속 나'를 주제로 한 "성북구 상상전"에 총 177점, '이태준 〈무서록〉'을 주제로 한 "성북구 먹내음"에 총 46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3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갤러리A에서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준 꿈나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 성북구 작품전

상상전 : 성북구의 문화유산 속 나



성북구청장상
〈홍천사에서 열린 고양이 결혼식〉
Paloma



성북구의회의장상
〈홍천사의 화려한 밤〉
박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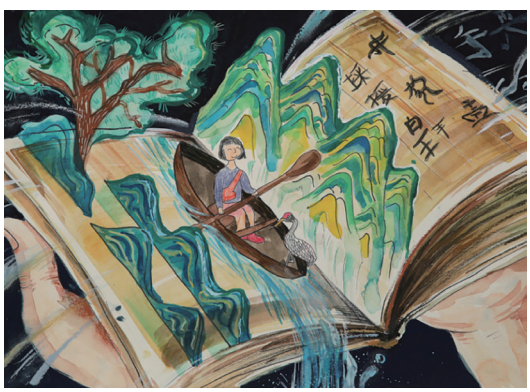
2024 성북문화.indb 108 2025-02-21 오후 2:05:15



김영배 국회의원상
〈해치와 함께 한양도성으로!〉
장하늘



김남근 국회의원상
〈의릉나들이〉
김태윤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팝업 용감수경권 탐험〉
김채원



성북문화원장상
〈모두 함께 강강술래(난산 한양도성)〉
이은호



성북미술협회장상
〈훈민정음과 함께 한 사계절〉
강건우

2024 성북문화.indb 109 2025-02-21 오후 2:05:16



입선
〈버킷리스트 1번은 삼청각에서 전통혼례하기〉
경하음



입선
〈아름다운 성북구를 그려요〉
김예나



입선
〈지키자! 5층 석탑!〉
김이레



입선
〈두둥실 열기구 여행〉
김하람

2024 성북문화.indb 110 2025-02-21 오후 2:05:16



입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길〉
나무나



입선
〈밤하늘이 빛나는 선잠 단지〉
양태온



입선
〈한용운선생님에게 깃들다〉
윤종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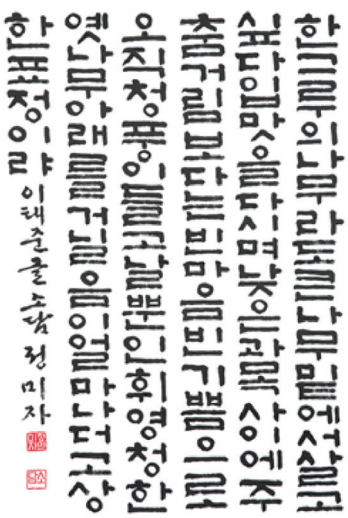


입선
〈간송미술관에서 만난 고려청자〉
하지민

2024 성북문화.indb 111 2025-02-21 오후 2:05:17

2024 성북구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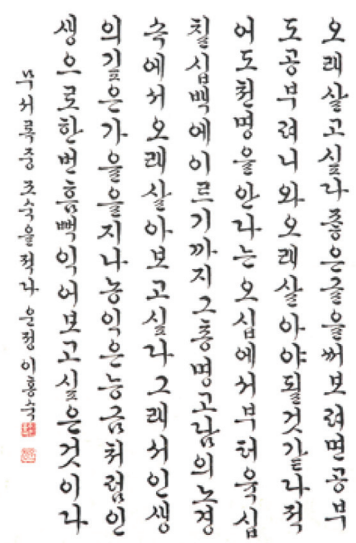
먹내음 : 이태준 〈무서록〉



성북구청장상
〈수목〉
정미자



성북구의회의장상
〈성〉
서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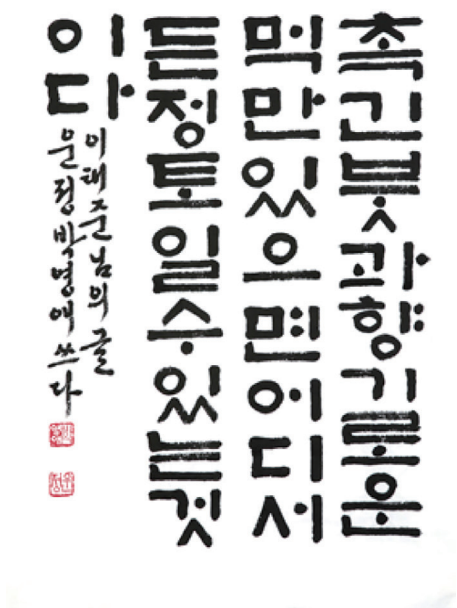


김영배 국회의원상
〈조숙〉
이홍숙



김남근 국회의원상
〈조숙〉
김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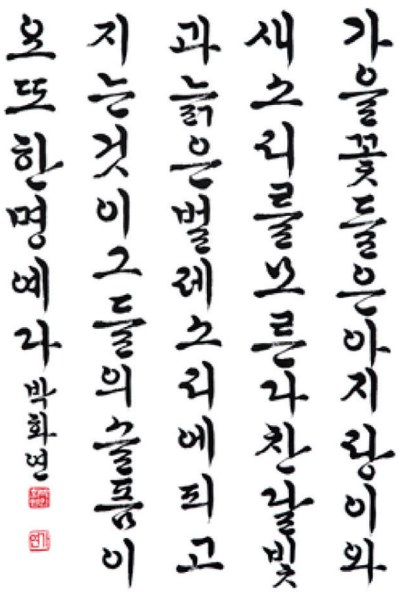
2024 성북문화.indb 112 2025-02-21 오후 2:05:17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필목〉
박영애



성북문화원장상
〈수목〉
김연순



성북미술협회장상
〈가을꽃〉
박화연

2024 성북문화.indb 113 2025-02-21 오후 2: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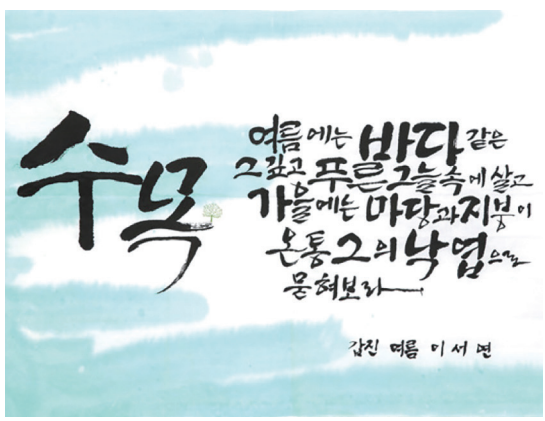
입선
〈벽〉
나은경



입선
〈가을꽃〉
신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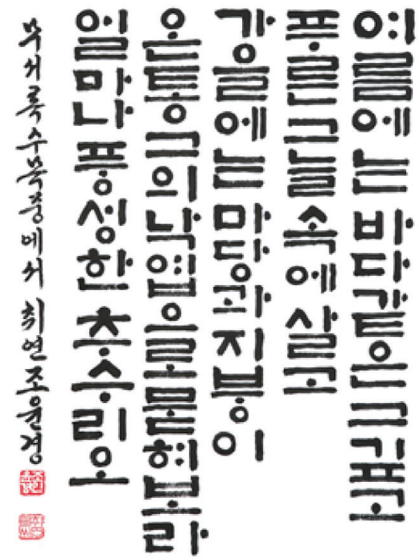


입선
〈벽〉
양효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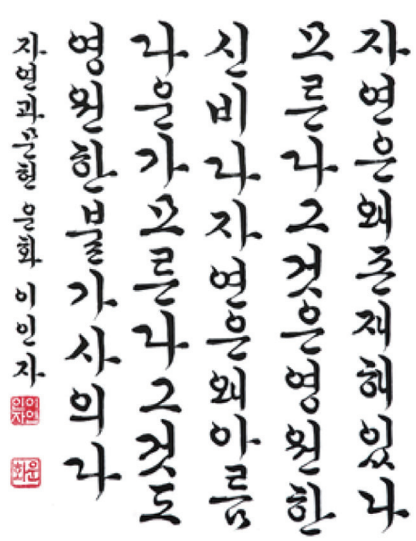


입선
〈수목〉
이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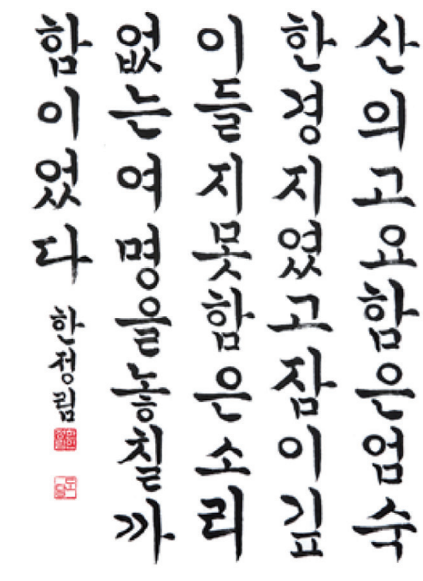
2024 성북문화.indb 114 2025-02-21 오후 2: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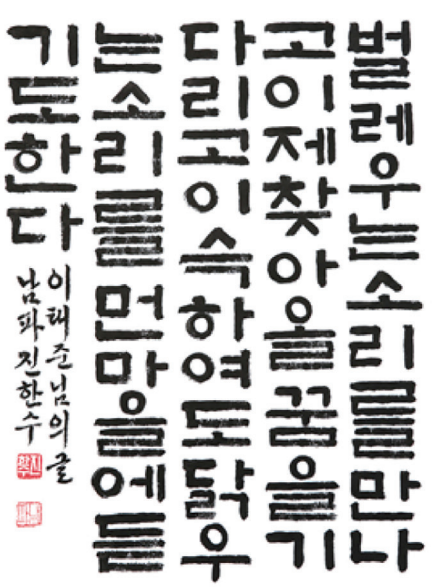
입선
〈수목〉
조윤경



입선
〈자연과 문헌〉
이인자



입선
〈여명〉
한정림



입선
〈밤〉
진한수

2024 성북문화.indb 115 2025-02-21 오후 2:05:18

사진으로 만나는 성북문화원의 2024년

성북문화원은 성북구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여러 지역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 감사드리며 함께 이룬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사진으로 기록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의 역사·문화로 지역사회에 가치를 나누는 성북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한국무용



한문서예



선소리 산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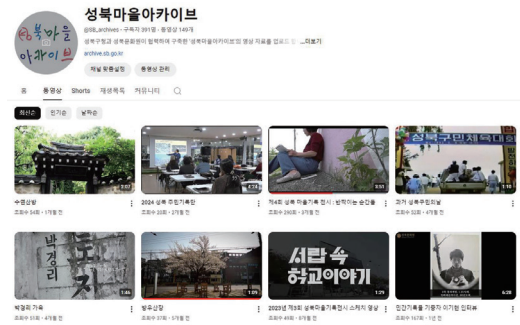
원어민영어회화

2024 성북문화.indb 116 2025-02-21 오후 2:05:20

지역 문화 계승사업



성북구 기록물 수집 및 기록콘텐츠 생산



성북마을아카이브 영상제작



주민기록단 활동 출범식



주민기록단 교육



성북구민의 날 및 구민체육대회 기념 전시



제4회 성북마을기록 전시

2024 성북문화.indb 117 2025-02-21 오후 2:05:23



성북구청 75주년 기념 전시



성북마을아카이브 기록콘텐츠 제작 및 홍보





성북문화 아카데미 | 상반기





성북문화 아카데미 | 하반기

2024 성북문화.indb 118 2025-02-21 오후 2:05:26





제7회 성북학 학술회의 | 강선영 탄생 100주년 : 국가무형유산 춤 계승의 의미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 성북, 이야기를 담다: 지역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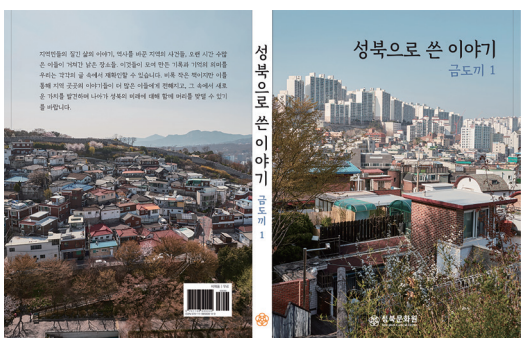
선잠제 및 친잠례 구술녹취 사업

2024 성북문화.indb 119 2025-02-21 오후 2:05:30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금도끼(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성북의 이야기) 책자발간사업





책자발간사업역사문화탐방 | 충청남도 부여

역사문화탐방 | 성북구 돈암동·동선동

2024 성북문화.indb 120 2025-02-21 오후 2:05:33



역사문화탐방 | 성북구 성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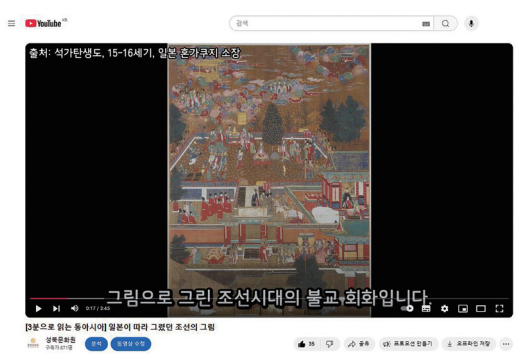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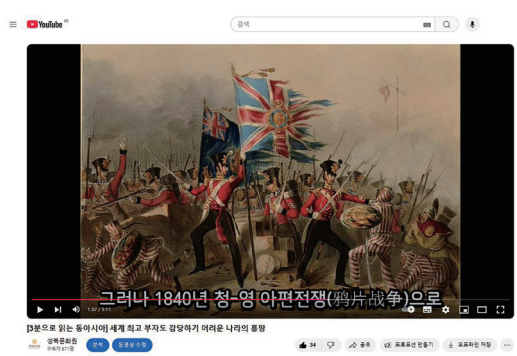
역사문화탐방 | 충청남도 천안





프리미엄 인문학 | 전쟁으로 보는 세계와 한국의 역사





프리미엄 인문학 | 3분으로 읽는 동아시아

2024 성북문화.indb 121 2025-02-21 오후 2:05:36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성북구 작품전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 Re: 육사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80주기 추모 다례재

2024 성북문화.indb 122 2025-02-21 오후 2:05:39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80주기 추모 예술제 | 기억할 만해萬海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만해 한용운 추모 창작 뮤지컬 공연 | 심우

2024 성북문화.indb 123 2025-02-21 오후 2:05:42





제8회 서울 문화원 엑스포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 무용 및 국악 경연대회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업무협약





성북문화원·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융합인재양성사업단 업무 협약(MOU) 체결

2024 성북문화.indb 124 2025-02-21 오후 2:05:46





성북문화원·서경대학교 업무 협약(MOU) 체결





성북문화원·한성대학교 업무 협약(MOU) 체결

기타







노후시설보수 및 정비(외벽 및 옥상 크랙, 옥상방수 공사)

2024 성북문화.indb 125 2025-02-21 오후 2:05:48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HOME > 지역소식 > 인서울

성북구, 시민강좌 'AI시대의 공감' 성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1-31 13:00:59



▲ 서울 성북구와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성북문화원이 함께 진행한 시민강좌 'AI시대의 공감'에서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성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성북문화원이 함께 진행한 시민강좌 'AI시대의 공감'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시민강좌는 2024년 1월 한 달 동안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기에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적인 공감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다.

첫 강연은 '한일재난문학과 빅데이터로 보는 재난인식'을 주제로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정병호 단장(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이 맡았다. 정 단장은 한국과 일본의 재난문학 개념과 표현의 지향점, 그리고 빅데이터로 드러나는 우리의 재난 인식을 다뤘다.

두 번째 강연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정호섭 교수가 '디지털 시대에 보는 삶과 죽음'을 다뤘다. 지난 2003년 400여 년 만에 발견된 파평 윤씨 모자(母子) 미라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특한 삶과 죽음 의식을 설명했다.

《시민일보》, 2024.01.31. 기사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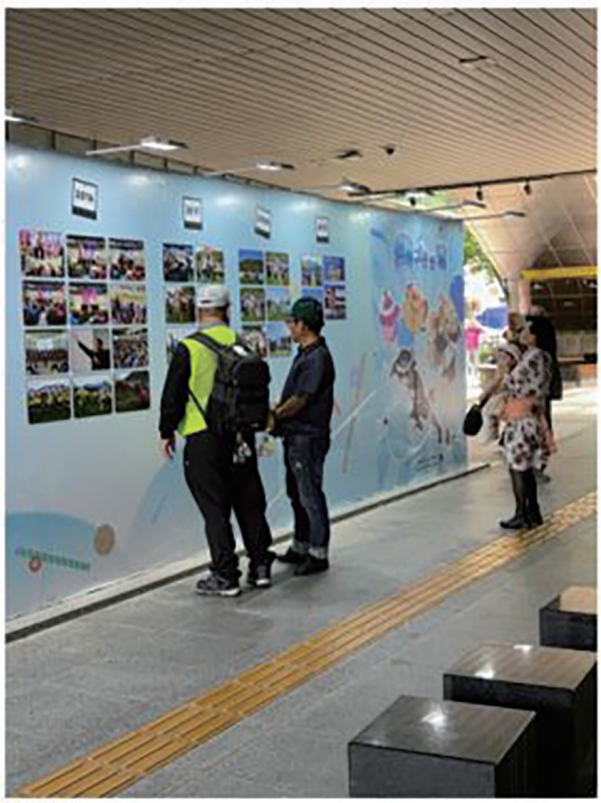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2024.09.23	시민일보	성북구, 시민강좌 'AI시대의 공감' 성료

2024 성북문화.indb 126 2025-02-21 오후 2:05:49

HOME › 지역소식 › 업세종

성북구, '성북구민의 날 및 구민체육대회 기념 옛 추억 꺼내보기' 전시 호응

변은선 / [redacted] / 기사승인 : 2024-05-05 11:05:23



▲ 사진=성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구청 1층 야외 게시판에서 진행하는 '성북구민의 날 및 구민체육대회 기념 옛 추억 꺼내보기' 전시가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 17일까지 진행하는 전시는 구와 성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함)이 함께하는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인 성북마을 아카이브를 활용해 마련됐다.

구와 문화원이 보유한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북구민의 날 및 구민체육대회 관련 사진 132점과 영도 미상 포함 30년이 넘은 자료 10점이 성북구민의 추억을 소환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전시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민일보》, 2024.05.05.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	2024.09.24	문화일보	성북구 역사·문화 담은 전시… "옛 추억 찾으러 오세요"
3	2024.05.05	시민일보	성북구, '성북구민의 날 및 구민체육대회 기념 옛 추억 꺼내보기' 전시 호응

2024 성북문화.indb 127 2025-02-21 오후 2:05:49



서울&

전체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성북구,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성북구청 제공

성북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성북문화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와 함께 꿈빛극장(성북구 길음로7길 20, 성북미디어문화마루 4층)에서 이육사 탄생 120주년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 문화제 'Re: 육사'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의 제목 'Re: 육사'는 성북구에서 활발하게 작품활동 했던 이육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Rethinking), 지난 시절 그가 민족과 후세에 던진 메시지에 응답(Reply)해보자는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육사(1904.5.18.~1944.1.16.)는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이다. 국내·외를 오가며 항일투쟁에 참여했으며 1939년부터 3년간 성북구 종암동 62번지에 머물며 작품활동에 매진했다. 이 시기 '청포도' '절정' 등의 대표작을 문예지 〈문장〉에 발표했다. 구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2016년부터 이육사 시인 탄생 기념 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겨레》, 2024.05.13.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	2024.05.13	아시아경제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Re: 육사' 개최
5	2024.05.13	신아일보	성북구, "Re: 육사" 꿈빛극장에서 개최
6	2024.05.13	천지일보	성북구, 항일민족시인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7	2024.05.13	한겨레	성북구,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8	2024.05.13	뉴시스	성북구,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연다
9	2024.05.16	시민일보	성북구,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Re:육사' 개최
10	2024.05.21	이뉴스투데이	서경대,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공동주최
11	2024.05.21	한국대학신문	서경대,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Re: 육사' 개최
12	2024.05.21	베리타스알파	서경대 성북구/구내 대학과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13	2024.05.21	포인트데일리	'Re:육사' 개최
14	2024.06.03	KTV국민방송	서경대학교, 성북구·구내 대학교와 함께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 문화제 'Re:육사' 개최

2024 성북문화.indb 128 2025-02-21 오후 2:05:49

HOME > 지역소식 > 인서울

성북구, '국가무형유산 춤 계승의 의미' 학술회 개최

변은선 / be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19 17:06:00



▲ '강선영의 춤, 그 배움과 계승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예능보유자 양성옥 명무의 인터뷰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성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최근 미디어문화마루 4층 꿈빛극장에서 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과 무형유산연합회가 주관하는 '제7회 성북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 및 무형유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성북학 학술회의는 '국가무형유산 춤 계승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태평무 예능보유자 강선영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국가무형유산 태평무의 가치 계승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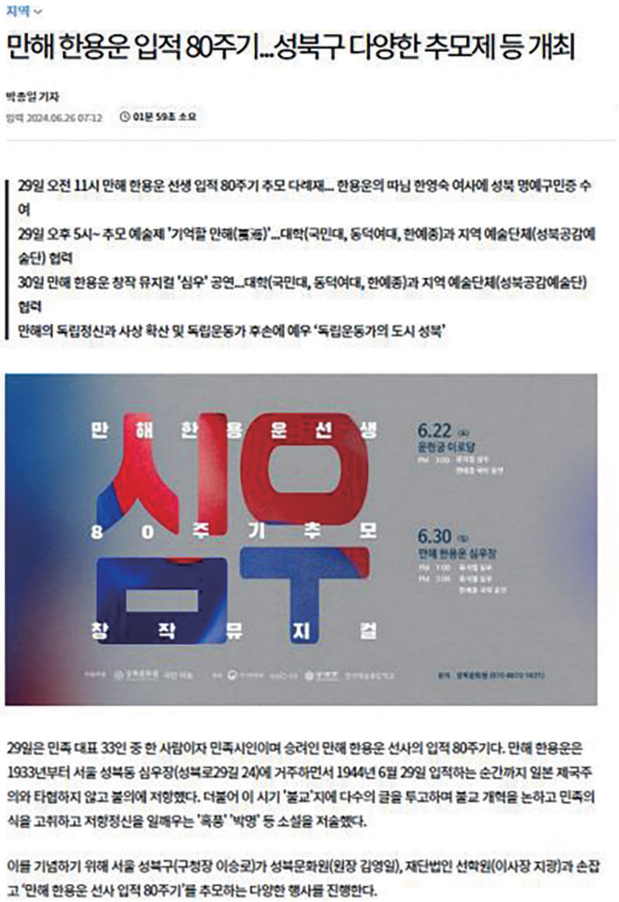
강선영은 1960년대 돈암동에 자리를 잡고,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전수소를 열어 제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전통춤을 가르쳤던 인물로 전통춤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예술인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본행사에 앞서 '강선영의 춤, 그 배움과 계승의 길'이라는 주제로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예능보유자 양성옥 명무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후 강선영이 주연을 맡은 무용 영화 '초혼'의 상영으로 본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시민일보》, 2024.06.1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5	2024.06.19	신아일보	제7회 성북학 학술회의 '국가무형유산 춤 계승의 의미' 성료
16	2024.06.19	시민일보	성북구, '국가무형유산 춤 계승의 의미' 학술회 개최

2024 성북문화.indb 129 2025-02-21 오후 2:05:49



지역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성북구 다양한 추모제 등 개최

박초임 기자

입력 2024.06.26 07:12 01분 59초 소요

29일 오전 11시 만해 한용운 선생 입적 80주기 추모 다례재... 한용운의 따님 한영숙 여사에 성북 명예구민증 수여

29일 오후 5시~ 추모 예술제 '기억할 만해(萬海)'...대학(국민대, 동덕여대, 한예종)과 지역 예술단체(성북공감예술단) 협력

30일 만해 한용운 창작 뮤지컬 '심우' 공연...대학(국민대, 동덕여대, 한예종)과 지역 예술단체(성북공감예술단) 협력

만해의 독립정신과 사상 확산 및 독립운동가 후손에 예우 '독립운동가의 도시 성북'

29일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자 민족사인이며 승려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입적 80주기다. 만해 한용운은 1933년부터 서울 성북동 심우장(성북로29길 24)에 거주하면서 1944년 6월 29일 입적하는 순간까지 일본 제국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했다. 더불어 이 시기 '불교'지에 다수의 글을 투고하며 불교 개혁을 논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저항정신을 일깨우는 '흑풍' '박명' 등 소설을 저술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지광)과 손잡고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80주기'를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아시아경제》, 2024.07.0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7	2024.06.26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성북구 다양한 추모제 등 개최
18	2024.06.26	연합뉴스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성북구 심우장서 다례재·예술제
19	2024.06.26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 행사 개최
20	2024.06.26	문화일보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 성북구, 추모 다례재 봉행
21	2024.06.26	한겨레	성북구, 오는 29일 만해 한용운 선생 입적 80주기 추모 다례재 열어
22	2024.06.26	시민일보	성북구,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 독립정신·사상 기리다
23	2024.06.27	트레블투데이	성북구,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 성북구 다양하게 기억할 만해(萬海)
24	2024.06.27	BBS NEWS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80주기 추모 다례재-예술제'…6/29(토) ~ 30(일) 성북구에서
25	2024.06.27	한겨레	성북구, 심우장 등서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 행사 열어
26	2024.06.27	뉴시스	만해 한용운 입적 80주기…성북구, 추모 다례재·예술제

2024 성북문화.indb 130 2025-02-21 오후 2:05:50



사회 : 교육

국민대 예술대학, 만해 한용운 80주기 추모제서 창작 공연 선보여

중앙일보 | 입력 2024.07.02 18:16

안충기 기자 구독

예술대학, 만해 한용운 80주기 추모 예술제 창작 공연 시선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예술대학팀이 지난 6월 29일(토)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 "기억할 만해萬海"에 참가해 창작 공연을 선보였다. "기억할 만해萬海" 예술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승려로서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성북구와 성북문화원, 재단법인 선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이다.

《중앙일보》, 2024.0.18.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7	2024.07.01	스마트경제	국민대 예술대학, '만해의 숨, 결'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서 창작 공연 선보여
28	2024.07.01	뉴시스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창작 공연 선보여
29	2024.07.01	대학저널	국민대 예술대학, "만해의 숨, 결"
30	2024.07.01	매일일보	국민대,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서 창작 공연 선보여
31	2024.07.01	뉴스프리존	국민대 예술대학, 만해 한용운 추모 예술제에서 창작 공연 선봬
32	2024.07.01	베리타스알파	국민대 예술대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 '만해의 숨, 결'서 창작 공연 진행
33	2024.07.01	디지털타임스	국민대 예술대학,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 창작 공연 선보여
34	2024.07.02	뉴스티앤티	국민대 예술대학, '만해의 숨, 결'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 창작 공연
35	2024.07.02	포인트데일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 '기억할 만해' 참가
36	2024.07.02	문화일보	국민대 예술대, 만해 한용운 선생 80주기 추모 예술제 창작 공연
37	2024.07.02	중앙일보	국민대 예술대학, 만해 한용운 80주기 추모제서 창작 공연 선보여

2024 성북문화.indb 131 2025-02-21 오후 2:05:50

오는 9월 27일~28일 양일 간, 성북동 역사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성북동 사진전' 개막



우먼타임스 ■ 엄현빈 기자

오는 9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언근(성북구 성북동 성북로24길 일대)에서 성북동의 역사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성북동 사진전'이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거리에서 진행되는 게릴라 전시로, 성북동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을 선정하여 성북동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성북동 사진전'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언근 담벼락에 전시물들을 배치하여 성북동 길을 걸으며 사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행사와 연계하여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성북동 사진전은 일이삼에서 주최 및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성북동의 다양한 이야기와 삶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다.

일이삼 송대석 대표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후원과 성북문화원의 협력 덕에 지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성북동의 다양한 모습을 많은 사진들에게 전할 수 있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성북동만의 특색 있는 문화 발전과 역사 발굴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먼타임즈》, 2024.09.1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8	2024.09.10	우먼타임스	오는 9월 27일~28일 양일 간, 성북동 역사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성북동 사진전' 개막
39	2024.09.11	에너지경제	"성북동의 역사와 이야기를 한 눈에", 성북동 사진전 개막
40	2024.10.08	빌리어즈	'성북동 사진전'…성북동 역사와 이야기 전해

2024 성북문화.indb 132 2025-02-21 오후 2:05:50

뉴스홈 | 최신기사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27~28일 문화유산 야행

송고시간 | 2024-09-23 17:21

정준영 기자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문학과 예술로 이어지는 성북의 밤'이 오는 27~28일 성북동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23일 밝혔다.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문화유산이 많은 성북동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2017년 시작됐다.

야행 기간에는 ▲ 만해 한용운 심우장 ▲ 최순우 옛집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본원 ▲ 이종석 별장 ▲ 선잠단지 ▲ 한양도성 문화재와 성북근현대문학관 ▲ 성북선잠박물관 ▲ 성북동 예향재 ▲ 성북역사문화센터 ▲ 우리옛돌박물관(뮤지엄 웨이브) 등이 야간에 개장한다. 예약하면 문화재에 대한 해설과 함께 야행을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2024.09.23.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1	2024.09.23	연합뉴스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27~28일 문화유산 야행
42	2024.09.24	신아일보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문화유산 야행
43	2024.09.24	전국매일신문	성북구·성북문화원, 문화유산 야행 개최

2024 성북문화.indb 133 2025-02-21 오후 2:05:50



독립기념관, 2024년 제11회 전시콘퍼런스 개최

기념관을 나간 독립운동가, 공공역사 속 독립운동 주제 전시콘퍼런스 개최

최지현 기자

기념관을 나간 독립운동가

공공역사 속 독립운동

[충남일보 최지현 기자] 독립기념관은 10월 11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최근 다양하게 창·제작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제11회 전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념관·박물관 바깥에서 풍성하게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역사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존 학계의 논문 넘어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 실천하는 '공공역사'와 뮤지컴, 게임, 그래픽노블, 지역아카이브 등 현장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매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자신의 작업과 경험과 고민을 나눈다.

2주제 '예술로 말하는 역사'(최분정 독립큐레이더)에서는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기획전 <서봉선 프로젝트: 암대도> 기획사례를 통해 암대도소작쟁의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예술적 서사로 그려냈는지를 살펴본다. 3주제 '함께 기록하고 보여주는 우리 마을 독립운동기'(박희준 성북문화원 연구부장)에서는 성북문화원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내 독립운동 사업이 일도농게 축적되어 독립운동 마을아카이브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공유한다.

《충남일보》, 2024.10.1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4	2024.10.10	더 팩트	독립기념관, 2024년 제11회 전시콘퍼런스 개최
45	2024.10.10	충남일보	독립기념관, 2024년 제11회 전시콘퍼런스 개최
46	2024.10.11	천지일보	독립기념관, 독립운동 관련 콘텐츠… 제11회 전시콘퍼런스 개최
47	2024.10.11	불교공뉴스	독립기념관, 2024년 제11회 전시콘퍼런스 개최

2024 성북문화.indb 134 2025-02-21 오후 2:05:50

동덕여대 무용전공팀,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공연 펼쳐

교육·캠퍼스 | 입력 2024.10.21 16:49

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



동덕여자대학교 윤혜선 교수가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린하모니아트(Green Harmony Arts) 공연단. (제공: 동덕여대) ⓒ천지일보 2024.10.21.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동덕여자대학교는 윤혜선 교수가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린하모니아트(Green Harmony Arts) 공연단이 지난달 28일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 주최·주관)'에 초대돼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은 수많은 문화유산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성북동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다. 문화재·문화시설 야간 개방, 지역 문화 예술인의 공연, 체험·전시, 해설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함께 문학과 예술로 이어지는 성북의 밤을 만들어 가는 행사이다.

이번 공연을 위해 그린하모니아트 공연단은 K-POP 댄스, 현대무용 창작, 한국무용 작품과 시민 참여형 춤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준비하여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춤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천지일보》, 2024.10.2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8	2024. 10. 21	천지일보	동덕여대 무용전공팀,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공연 펼쳐
49	2024. 10. 21	이뉴스투데이	동덕여대 그린하모니아트 공연단,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에서 시민 공연 개최
50	2024. 10. 21	베리타스알파	동덕여대 무용전공 윤혜선 교수 그린하모니아트 공연단 단장 맡아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공연 진행
51	2024. 10. 23	뉴데일리	[포토뉴스] '그린하모니아트', 화려한 춤사위로 성북동 문화유산 야행 수놓아

2024 성북문화.indb 135 2025-02-21 오후 2:05:50



성북의 이야기를 담은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입력 : 2024-10-30 20:56 | 수정 : 2024-10-30 20:56

서울 성북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 성신여자대학교 공공역사연구소가 주관하는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가 다음달 8일 성신여자대학교 난향관과 성신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는 '성북, 이야기를 담다: 지역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지역학과 그 지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다루며 지역학과 문화콘텐츠 생산자들 간의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신문》, 2024.10.3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52	2024.10.30	서울신문	성북의 이야기를 담은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53	2024.10.31	시민일보	성북구, 8일 '성북학 학술회의'
54	2024.11.04	베리타스알파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공동으로'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8일
55	2024.11.04	디지털타임스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공동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56	2024.11.04	교수신문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공동으로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57	2024.11.04	대학저널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58	2024.11.04	스마트경제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공동으로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59	2024.11.04	핀포인트뉴스	성신여대,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0	2024.11.04	천지일보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공동 개최
61	2024.11.04	뉴시스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2	2024.11.04	매일일보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3	2024.11.04	이데일리	성신여대, 지역사회와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4	2024.11.04	E동아	성신여대 "서울 성북구 등과 공동으로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5	2024.11.04	팝콘뉴스	성신여대, 지역기관과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6	2024.11.04	뉴스1	성신여대, 지역사회 기관과 공동으로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7	2024.11.05	강원일보	성신여대, 오는 8일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개최
68	2024.11.10	뉴데일리	성신여대, 제8회 성북학 학술회의 성료 … 성북지역 문화콘텐츠의 가치·현주소 탐색

2024 성북문화.indb 136 2025-02-21 오후 2:05:50

서경대·성북문화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맞손

문화예술 교육 및 사업 추진

김국진 기자 입력 2024.11.26 18:50

댓글 0 가



[사진=서경대학교]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서경대학교(총장 김범준)는 26일 교내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성북구 지역 문화예술기관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과 성북구 역사·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경대 측에서 김범준 총장, 최은정 교수(센터장), 권미경 교수(운영위원장), 김민하 교수(운영위원), 허수연 교수(운영위원)가, 성북문화원 측에서 김영일 원장, 강성봉 사무국장, 박수진 운영부장, 백외순 연구부장 등 양 기관 참석했다.

《이뉴스투데이》, 2024.11.2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69	2024.11.26	베리타스알파	서경대, 성북문화원과 성북구 역사/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70	2024.11.26	이뉴스투데이	서경대·성북문화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맞손
71	2024.11.26	내일신문	서경대-성북문화원, 역사·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
72	2024.11.27	뉴시스	서경대, 성북문화원과 역사·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

2024 성북문화.indb 137 2025-02-21 오후 2:05:51

한성대, 성북문화원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2024-11-30 15:12:19 게재

인문·예술분야 프로그램 개발·연구도 추진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는 지난 27일 교내 상상관 대회의실에서 성북문화원(원장 김영일)과 인문.예술 분야 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문·예술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한성대와 성북문화원은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구 과제를 발굴하며 산학협력 사업의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문·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 활동과 협력 사업, 행사 기획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지현 한성대 글로컬협력처장, 윤성호 한성대 역사문화큐레이션트랙 주임교수, 이은희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 김영일 성북문화원장, 강성문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박수진 성북문화원 운영부장, 백외준 성북문화원 연구부장

《내일신문》, 2024.11.3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73	2024.11.28	베리타스알파	한성대, 성북문화원과 인문·예술 분야 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74	2024.11.28	스마트경제	한성대, 성북문화원과 인문·예술 분야 프로그램 개발·연구·산학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75	2024.11.30	내일신문	한성대, 성북문화원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2024 성북문화.indb 138 2025-02-21 오후 2:05:51

2024년도 성북문화원 임직원 수상소식

[성북문화원 이사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수상]



성북문화원 이사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대구간송미술관장 겸임)이 2024년 10월 25일 열린 '2024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국민적 향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문화예술 일반부문)'을 수상했다.

전인건 관장은 간송미술관 관장, 대구간송미술관 초대 관장,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운영위원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고미술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보존, 가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전인건 관장은 "이번 수상은 간송미술관에서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받는 상이며, 간송께서 추구하셨던 문화보국 정신과 가치를 지금에 맞도록 실천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이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께 우리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우리의 문화적 DNA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성북문화원 운영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채수정 교수 제6회 국창 임방울상 수상]



성북문화원 운영위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채수정 음악과 교수가 2024년 11월 18일 제6회 '국창 임방울상'을 수상했다.

'국창 임방울상'은 '임방울국악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가운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판소리 계승·보급 진흥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채수정 교수는 2015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은 물론 각종 저작활동을 통해 판소리의 보급·계승에 힘썼다. 특히 2022년 세계판소리협회를 창립하고 월드판소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내외적으로 판소리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24 성북문화.indb 139 2025-02-21 오후 2:05:51

2024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김영일	㈜태명실업 회장
부원장		
	백병수	자일자동차(주) 대표이사
	최종명	최종명세무사사무소 대표
이사		
	구원경	에스코 홀딩스 시니어매니저
	공상구	마이아트 옥션 대표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이승철	NHN 콘텐츠 총괄 프로듀서
	이영기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장윤규	국민대 건축학부 교수/운생동 건축사무소 공동대표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관장
	허광복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당연직)	임근수	성북구청 행정문화국장
감사		
	정호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최한진	다율회계법인 부대표

2024 성북문화.indb 140 2025-02-21 오후 2:05:51

운영위원

계영선	영 라인의원 원장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운영부장
유형균	철한정화기업 전무이사
이병곤	서울 운현궁 관리운영본부장
이홍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수석연구관
장옥주	공감M아트센터 대표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한민석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황장훈	세무법인 혜윰 하남미사지점 대표 세무사

고문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 원장
박병호	前 서울시 문화유산해설사
이병무	㈜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피죤 회장
이의순	㈜세방그룹 명예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CEO회장
정승소	㈜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강석원	前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정하경	前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에스코 회장
2대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
3대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2024 성북문화.indb 141 2025-02-21 오후 2:05:51

2024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권기중, 김명진, 김석중, 김선태, 김성진, 김연화, 김용준, 김유영, 김은화, 김장현, 김준용, 김준현, 김지은, 김진흠, 남기현,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동명, 박상찬, 박창희, 배경식, 배기석, 서준석, 송양섭, 신상용,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이건자, 이상훈, 이승호, 이승희, 이응선, 이재석, 이정빈, 이주헌, 이준성, 이중민, 이현주, 임석규, 전원호, 정병기, 정　영, 조규태, 주연경, 최성규, 최성찬, 최우석, 최정순, 최진형, 최호진, 표민수, 한민석, 홍선희, 황장훈

기관·단체

㈜삼신엠앤티, 주식회사 피사일삼, 철한정화기업(주)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영라인의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6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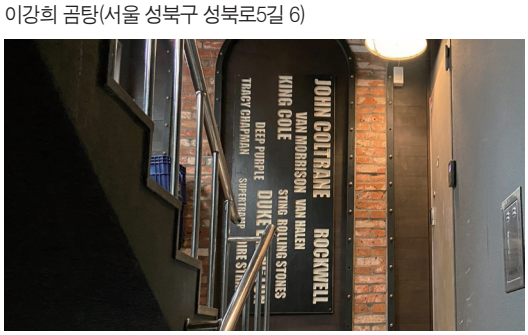
고기 굽는 마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6)



구포국수 (서울 성북구 성북로19-1 2층)



데자르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30 2층)



배가요리(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9-12)

2024 성북문화.indb 142 2025-02-21 오후 2:05:54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2-640253)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성북문화.indb 143 2025-02-21 오후 2:05:54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802-640253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 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 ·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 · 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 · 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25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2024 성북문화.indb 144 2025-02-21 오후 2:05:54